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CASE STUDY ON THE QUIET TIME AT A CHRISTIAN SCHOOL
WITH A FOCUS ON THE DONGBANG HIGH SCHOOL**

기독교 학교의 경건의 시간에 대한 사례연구: 동방고등학교를 중심으로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 Hun Yeo (여 성 현)

Lynchburg, Virginia

April 2017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Sungtaek Kim
Director, Korean Ministries
Assistan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QUIET TIME AT CHRISTIAN SCHOOLS WITH A FOCUS ON DONGBANG HIGH SCHOOL

Sung Hun Yeo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7

Mentor: Dr.Sungtaek Kim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examples of Quiet Time that have taken place in some mission schoo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s' upright character, the recovery of Christian values, and the invigoration of campus missionaries. Recently, students' character has been adversely affected by corruption,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as well as a lack of morality; mission schools are no exception. Furthermore, education centered on entrance exams and a prohibition on religious discrimination make harsh circumstances for Christian education and ministry even in mission schools.

As a school chaplain, the writer has become keenly aware of the necessity of Morning Quiet Time; it should be performed effectively for the development of students' Christian personality and campus mission. I suggest an effective way to accomplish goals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influence of Quiet Time on students in Dongbang High School which has held fast to a Christian founding philosophy.

In this research, the writer examines the necessity of Quiet Time and suggest an effective way to accomplish the development of students' Christian personality and campus mission for the purpose of the students' regeneration and spiritual growth in cooperation with local churches.

Abstract length: 193 words

ABSTRACT

초록

A CASE STUDY ON THE QUIET TIME AT CHRISTIAN SCHOOLS WITH A FOCUS ON DONGBANG HIGH SCHOOL

기독교 학교의 경건의 시간에 대한 사례연구: 동방고등학교를 중심으로

Sung Hun Yeo (여성현)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6

Mentor: Dr.Sungtaek Kim (김성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기독교 가치관 회복, 그리고 학원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학교 내에서의 경건의 시간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윤리의식의 부재, 부정과 부패,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향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기독교학교들도 예외는 아니다. 입시중심의 교육, 그리고 종교차별금지라는 법안으로 인해 학생들의 기독교적 인성함양, 학원선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독교학교의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기독교 인성함양과 학원선교를 위해 아침 경건의 시간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을 유지하고 있는 동방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경건의 시간 영향력에 대해 설문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독교학교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학원선교에 관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을 확고히 하고 학생들의 기독교 인성함양과 학원선교를 위해 경건의 시간의 필요성과 효율적 사용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학원복음화의 현실적 어려움을 넘어서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지역 개교회와 연계하여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실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 길이: 147 words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

먼저 부족한 자에게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참으로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전도사로서 주일학교를 섬기던 시절 한 가지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학교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이민생활로 이 꿈을 잊고 있었지만, 귀국하면서 비록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어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동방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사역하게 되면서 주님 주신 비전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고, 물심양면으로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시며 든든한 후견자가 되어주신 학교법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방학원의 학원장 이용국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자상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지도해 주시며 열정과 용기를 북돋워 주신 김성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따듯한 격려로 힘을 보태주신 동방고등학교 교장 손창옥 선생님과 기도로 격려해 주신 혜천기념교회 이규현 담임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세 아이의 엄마와 목회자의 아내로서 늘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아내,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늘 미안한 민기와 민지, 민우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S	vii
감사의 글	
TABLES	xiii
표	
ABBREVIATIONS	xv
약어	
SUMMARY	xv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Statement of the Problem and Purpose of the Study.....	1
문제진술 및 연구목적	
1) Statement of the Problem	1
문제진술	
2) Purpose of the Study.....	3
연구목적	
2. Scope, Limitations, and Terminology.....	3
범위와 한계 및 용어	
1) Scope and Limitations	3
범위와 한계	
2) Terminology	4
용어	
3. Biblical and Theological Grounds	6
성경적, 신학적 근거	

4. Research Methodology	7
연구방법론	
5. Review of Literature	8
문헌 검토	
CHAPTER 2: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Quiet Time and Current Situation of Quiet Time in Christian Schools.....	16
제 2 장: 경건의 시간 개념이해와 기독교 학교내의 현재 상황	
1.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iety	16
경건의 개념 이해	
1) Piety in the Bible	16
성경에서의 경건	
2) Calvin's Concept of Piety.....	20
칼빈의 경건에 대한 개념	
3) John Wesley's Concept of Piety.....	22
존 웨슬리의 경건에 대한 개념	
4) Puritans' Concept of Piety.....	23
청교도들의 경건에 대한 개념	
5)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Quiet Time (QT).....	25
경건의 시간(QT)에 대한 개념 이해	
2. The Purpose and Current Situation of Quiet Time in Christian Schools	29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 목적과 현재상황	
1) The Purpose of Quiet Time in Christian Schools.....	30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 목적	
2) Implementation of Quiet Time in Christian Schools.....	32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 시행 방법	
3.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in Christian Schools and Realistic Problems for the Practice of Quiet Time	33
기독교 학교 종교 교육현황과 경건의 시간 실천을 위한 현실적 문제	
1) Implementation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in Christian Schools.....	33
기독교 학교별 종교 교육의 시행 현황	

2) Realistic Problems for the Practice of Quiet Time in Christian Schools	34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 실천을 위한 현실적 문제	
CHAPTER 3: Cultural Understanding of Modern Adolescents as the Objects of Mission	36
제 3 장: 선교 대상으로서의 현대 청소년에 대한 문화적 이해	
1. Definition of Adolesce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36
청소년의 정의와 특성	
1) Definition of Adolescents.....	36
청소년의 정의	
2)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37
청소년기의 특징	
2. Cultural Understanding of Modern Adolescents	42
현대 청소년의 문화적 이해	
1) Postmodernism	43
포스트모더니즘	
2) Sentimentalism	47
감성주의	
3) Relativism.....	48
상대주의	
4) Individualism.....	49
개인주의	
5) Consumerism.....	50
소비주의	
3. Adolescents as Objects of Mission	51
선교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CHAPTER 4: Implementation Status of Quiet Time in Dongbang High School.....	53
제 4 장: 동방고등학교 경건의 시간 실시 현황	
1. Quiet Time at Dongbang High School.....	53
동방고등학교의 경건의 시간	
1) The Founding and Educational Philosophies of Dongbang High School	53
동방고등학교의 건학 이념과 교육 이념	

2) Chapel and Quiet Time.....	61
채플과 경건의 시간	
3) The Content of Quiet Time at Dongbang High School	65
동방고등학교의 경건의 시간 내용	
4) A Pla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Quiet Time	67
경건의 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CHAPTER 5: Analysis of Survey Data on Quiet Time at Dongbang High School	69
제 5 장: 기독교학교 경건의 시간에 관한 설문자료 분석	
1. Research Method.....	69
연구방법	
1) Research Subjects.....	69
연구대상	
2) Research Tools.....	69
연구도구	
3) Research Procedures.....	70
연구절차	
2. Data Analysis	71
자료분석	
3. Research Results and Interpretation.....	71
연구결과 및 해석	
1) Perception toward What May Affect Quiet Time.....	71
경건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2) Perception toward Quiet Time.....	78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3) Perception toward the Effects of Quiet Time	84
경건의 시간을 통해 받은 영향에 대한 인식	
CHAPER 6: Conclusion.....	95
제 6 장: 결론	
1. Research Summary.....	95
연구요약	

2. Research Conclusions	97
연구결론	
1) Perception toward What May affect Quiet Time depending on Grade, Gender, and Religion	97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2) Perception toward Quiet Time depending on Grade, Gender, and Religion	99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3) Perception toward the Effects of Quiet Time depending on Grade, Gender, and Religion	100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을 통해 받은 영향에 대한 인식	
3. Proposal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Quiet Time in Christian Schools.....	101
기독교학교 경건의 시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제언	
Appendix A	103
부록 A	
Bibliography.....	108
참고자료	
IRB Approval.....	112
IRB 승인	

TABLES

표

표 1. 대전광역시 기독교 학교 종교 수업 및 예배 현황	34
표 2. Adolescent 와 Youth 의 개념에 관한 비교	37
표 3. 가치관 형성 교육 활동 세부 추진 계획	54
표 4. 2016 년도 동방고등학교 1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56
표 5. 2016 년도 동방고등학교 2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57
표 6. 2016 년도 동방고등학교 3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58
표 7. 일과 운영시간표	59
표 8. 종교와 생활Ⅱ 단원 구성	60
표 9. 동방고등학교 채플 순서 현황	62
표 10. 현 동방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경건의 시간 계획	66
표 1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69
표 12. 설문지의 문항 구성	70
표 13.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 형식에 대한 인식	72
표 14. 경건의 시간 형식 개선 방안	73
표 15.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이상적인 진행시간에 대한 인식	74
표 16.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상적인 실시 횟수에 대한 인식	76
표 17.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임하는 태도	77
표 18.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79
표 19. 경건의 시간이 도움이 되는 이유	80
표 20.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	81

표 21.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흥미	82
표 22. 경건의 시간이 흥미 있는 이유	83
표 23.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	84
표 24.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	85
표 25.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학교 입학 후 신앙생활의 변화	87
표 26.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에 대한 인식	89
표 27.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을 통한 전도의 효과	91
표 28.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인격형성에 도움 정도	93

ABBREVIATIONS

약어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FTA	Free Trade Agreement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T	Information Technology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QT	Quiet Time
PANTS	Personal Amusement Natural Transborder Selfloving
PPT	PowerPoint
기학연	기독교 학교연맹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in Korea intersects the beginning of Christian schools. Christian school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Christianity by carrying out faith-based education. Founded amidst the difficulties of the early modern period, Christian schools aimed at an education purpose of “volunteering for the people and society on the basis of faith.” Many Christians made contributions toward the nation and the church through education in Christian schools. However, nowadays Christian schools are undergoing an identity crisis due to the ministry of education's anti-religious discrimination policy. Furthermor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cultural situation of adolescents living in a postmodern era not only make it difficult for Christian students to maintain their faith, but also hinders the evangelization of non-Christian students. Such a situation requires an education that fits the identity and founding purpose of Christian schools. Christians must teach students Christian values, carry out holistic education through these teachings, and find an effective method for evangelizing non-Christian students.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establish, through quiet time, Christian values in students experiencing emotional anxiety, amidst the rapidly changing and confusing era of postmodernism which makes it more difficult for Christian schools to do school missions. The study, furthermore, verifies in detail the effects of quiet time in Christian schools by effectively conducting the calling of Christian schools – evangelization.

CHAPTER 2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QUIET TIME AND CURRENT SITUATION OF QUIET TIME IN CHRISTIAN SCHOOLS

To understand devotional time, which is called Quiet Time (QT) in this thesis, in Christian schools, one should first comprehend the concept of piety. Piety in the Bible has its grounds in *hasid* (חַסִּיד) in the Old Testament and *eusebeian* (εὐσεβειαν) in the New Testament. Piety in the Old Testament, as found in etymology, is accomplish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Jehovah God and his people, Israel; in other words, it is attained by entering into a mutual covenant, which is achieved by the decree and grace of God. The basis of piety is the grace of God. Piety in the New Testament refers to the heart of worshiping God from the reverence, love, and pure conscience of the believer. In particular, the concept finds close association with the term *γυμναζε*, taken as the present order form of *γυμναζω*, meaning “to train naked” as in the hard training undertaken by wrestlers to win a medal. In order to achieve piety, one must ceaselessly endeavor to live a holy life, one of loving and revering God.

Calvin explained piety as revering and loving God with the attitude of a believer, and as loving one’s neighbor in addition to oneself. Piety must be trained solely through the word of God, and the believer must exert his strength in loving the church, evangelizing, and doing missions. John Wesley placed the basis of piety on the nature of God, and he referred to piety as obedience to Scripture in following the will of God and the practice of his word, all the while knowing, loving, and serving God. In particular, he emphasized the true start of piety training with “the forgiveness of sins through repentance.” The Puritans explained piety as spiritual and

ethical change,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practice of the individual believer's holy life to achieve this change.

The present researcher was able to discover a few commonalities among the definitions of quiet time espoused by theologians in history, and including the fact that they all considered fellowship with God of prime importance. They encouraged time to be set aside for offering, meaning the time used to meditate on the word of God and the believer's listening to the voice of God; the believer is then transformed through prayer and comprehensive obedience by way of God's word. Both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Moses, Joshua, Isaac, Jesus, Cornelius, and Simon are seen having quiet time.

Currently, Christian schools experience difficulty in completing their calling in regard to school missions simply by way of chapel and religion classes. Therefore, quiet time should be used to resolve these issues. If used effectively, quiet time should yield great results for faith training and school missions in Christian schools.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executing quiet time in Christian schools. Among the Christian schools located within Daejeon, only Dongbang High School does quiet time. Other schools simply have a service about once a week for students and the teaching staff. The reason for this lies at prioritizing grades over this time, compo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s policy of prohibiting religious bias and the teaching of a particular religion.

The difficulty of conducting quiet time also includes finding a physical place within the school in which to conduct the time. Also, it is difficult for the chaplain to instruct all the students alone. Thus, teenagers are unable to receive sufficient faith training in the home, at school, and even at church.

CHAPTER 3

CULTURAL UNDERSTANDING OF MODERN ADOLESCENTS AS THE OBJECTS OF MISSION

Adolescence originates from the Latin *adolescere* and means “to mature” or “grow into an adult.”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adolescents are defined as “those over the age of 9 and under 24.” Adolescence reveals an extremely complicated and diverse process as adolescents mature into adults. Many physical and physiological changes occur during adolescence, making this process difficult to predict. These changes sometimes cause differences among adolescents, an interest in the opposite sex, and a sense of inferiority. The development of sexual desires, in particular, can cause social issues due to a sense of guilt and anxiety over impulse control. Adolescents develop an egocentric morality and social understanding. They are emotionally sensitive. Furthermore, they are highly imitative, curious, and tend to blindly and enthusiastically follow idols. Their social characteristics can be summarized into two types: the first is the potential and positive acknowledgment they receive from society; the second, this acknowledgement coexisting with immaturity, leading to an in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oneself. In addition, they characteristically try to individualize and become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and also tend to focus on their peer group.

In order to understand modern adolescents, one must first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culture in which they are left.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at this is an era of postmodernism. This era has thoroughly demolished “the certainty for the self,” or, in other words, the universality of values formed by reason and the certainty to the grounds of objective standards. Furthermore, this era refuses myths, epic stories, and the onesidedness of science. It also denies truth. The

second is sentimentalism. People want to see rather than listen, and prefer direct experience to indirect explanation. They value the more provocative through judgments resulting from mood and sensibility, which has resulted in easy encounters with violent and incendiary online games, obscene videos, seductive magazines, drinking, and drugs. The third characteristic is relativism. To adolescents, there is no absolute truth. They believe that everything has relative uniqueness. Adolescents believe pleasure, joy, and satisfaction is the truth of life. This has severed dialogue between adolescents and the older generation, particularly their parents, and appears as ambiguity in all areas spanning from psychology to fashion. The fourth is individualism. There are many adolescents who grow up alone as a result of the nuclearization of the family and double income families. These adolescents have learned how to talk to society through smart phones and personal computers thanks to the exponential growth of the internet and IT industry. Thus, they have failed to learn how to consider others within a sound community. Hence, they become selfish, violent, and character-less human beings. The fifth is consumerism. Loving only themselves, adolescents are interested in and imitate only the behavior and appearance of celebrities appearing in the media. In order to fulfill their desire for consumption, they engage in prostitution, running away from home, and various other types of delinquencies.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are well expressed in the school, their main place of activity. They talk with friends and school teachers to the extent of calling school a second home. These days, however, school has become just an institute for acquiring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required by the older generation. Hence, adolescents need faith training inside Christian schools. This type of training is an opportunity to grow the faith of Christian students and to cultivate a Christian character in non-Christian students.

CHAPTER 4

IMPLEMENTATION STATUS OF QUIET TIME IN DONGBANG HIGH SCHOOL

Located in Daejeon, Dongbang High School has the founding philosophy of “worshipping heaven, serving the nation, and loving your fellow man.” On this basis, the school has established an educational philosophy of “cultivating dignified world citizens with proper character and creativity.”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chool has set its educational goals as patriots, creators, healthy persons, and independent persons. Its character education department, in particular, has exerted much effort to achieve its founding philosophy through activities including worship and education, volunteering and serving, missions and visions, along with housing the chaplain's office. The curriculum table of Dongbang High School shows that only the tenth grade has religion classes, while these classes are left out of the eleventh and twelfth grades due to a curriculum centered on public education. Religion classes allow students to acquire a wide-ranging, balanced knowledge on religion. Furthermore, they help students develop the proper attitude toward life by cultivating a mature personality and by making students understand the diversity and differences of religions.

Chapels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Christian schools.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the founding philosophy and educational purpose of the school. Chapels at Dongbang High School are conducted every week during eighth period on Thursdays, with the participation of over 1,000 students. Students can be exempted if they have a different religion or do not wish to participate. The chapel service consists of praise, a confession of faith, hymns, a representative prayer, special praise, a sermon, announcements, and a benediction. The praise is carried out for ten minutes under the guidance of a choir organized by the students. The songs usually involve

CCM or gospel songs often sung by the students. Confession of faith is carried out by reciting the Apostles' Creed, and the hymn is sung by selecting one from the hymnal used in local churches. Hymns are used in limitation out of consideration for non-Christian students. The vice president of missions in each class is responsible for doing a representative prayer and must write down the prayer beforehand in addition to receiving instruction from the chaplain. The special praise is carried out in turns every week, and allows students to worship as they wish; the use of dance routines, rap, and instruments are all permitted. The sermon focuses on the text of the Bible itself, but tools like video and slide presentations are also used to improve understanding. Sometimes a special guest is invited to do the sermon. The announcements relay the important matters of the school, and lastly, the benediction ends the chapel.

The quiet time at Dongbang High School is 10 minutes during the morning assembly, from Monday to Friday. It begins with a hymn familiar to the students, which is led by the chaplain on Monday, and the teachers, mission department head, and deputy head on the remaining weekdays. The chaplain prepares a month of Bible passages beforehand, which is then distributed. The prayer time is freely conducted by the homeroom teachers of each class.

In order to effectively conduct the quiet time, a trite format that would bore the students should be avoided; instead, a free atmosphere to make the students feel comfortable is preferred. Furthermore, the chaplain must prepare material for the teachers and mission department head beforehand so that they can relay the Bible passages effectively. Also, the chaplain's office must be left opened so that anyone requiring Scripture for meditation can use the large amount of material there when needed.

CHAPTER 5

ANALYSIS OF SURVEY DATA ON QUIET TIME AT DONGBANG HIGH SCHOOL

The subjects of the study's survey were 96 tenth and eleventh graders attending Dongbang High School.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concerning the perception of matters that may affect quiet time depending on grade, gender, and religion showed that students with a religion were more receptive to having a quiet time at school than those without a religion, with the vast trend being a positive perception of quiet time. Points for improvement included the preference for a free format as opposed to one that may be trite and stiff, and for a video-based format deviating from a horizontal knowledge transmission as in regular subject classes. For Christian students, the ideal period of time for quiet time was 6-10 minutes, while half of the Buddhist and non-religious students responded the ideal length as less than five minutes. Concerning frequency, Christian students regarded four times a week as ideal, while Buddhist and non-religious students responded that once a week was ideal. Concerning attitude,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engage in the quiet time seriously. However, it appeared that students with other religions slacked off or just had their eyes closed.

Second, concerning the item on perception toward quiet time depending on grade, gender, and religion, it appeared that subjects perceived quiet time as beneficial and interesting overall, saying it benefited the formation of their Christian faith and a positive attitude. However, over half of the Buddhist and non-religious students perceived it as not beneficial or were indifferent. Students who perceived it negatively stated reasons like boredom, a different religion, or mere formality. Students who expressed interest in quiet time stated that many parts

of the quiet time helped them live life and help them understand religion. On the contrary, students state they were not interested because the content was rigid and Christian.

Third, concerning the perception on matters in the quiet time that influenced the students depending on grade, gender, and religion, it appeared that students perceived positively the atmosphere of the Christian school. After being admitted into the school, over half of the students stated that quiet time helped them in their walk of faith, and about half said that quiet time helped them understand Christianity. About half said the evangelism effect of quiet time was mediocre, while about a third said that it had a strong effect. Also, about half said that quiet time helped form character, with more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responding that it was helpful.

The above survey analysis reveals that quiet time is sufficiently capable of cultivating Christian values and conducting faith training.

CHAPTER 6

CONCLUSION

Contemporary Christian schools face difficulty in conducting their original purposes due to identity loss and crisis. As a new spiritual program for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quiet time is desperately needed. Chapel and religion classes are unable to produce great results in cultivating Christian character or conducting school mission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accelerate a more effective presentation of the gospel and school evangelization by researching cases of quiet time at Dongbang High Schoo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inquiry showed that quiet time was able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and produce many benefits in forming faith and a positive attitude. Furthermore, the results show that many students enjoyed benefits to their walk of faith. Such results show that quiet time functions positively every day despite their short duration, and significantly benefits school missions. Therefore, Christian schools will greatly benefit from quiet time in terms of cultivating Christian values and conducting school missions if they carry out quiet time along with the variety of religious activities they are already conducting.

As the results above concern 96 current students at Dongbang High School in Daejeon, a different approach for Christian schools in rural regions or other cities may be required. Also, the help of many teachers, as opposed to the chaplain alone, is desperately needed in order to fulfill the identity and founding purpose of Christian schools. Therefore, the tasks of employing Christian school teachers, establishing identity, conducting faith education, and especially an education that can solidify the calling of school missionaries still remain.

제 1 장

서론

1. 문제 진술 및 연구목적

1) 문제 진술

이 땅에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는 과정은 기독교 학교의 시작과 맞물린다. 한국의 기독교 학교들은 한국 근세사에서 문화 창조와 인간의식 계발에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종교교육을 통하여 평등사상, 민주사상과 민족자주사상을 고취하여 애국의 기상과 순국의 기백을 불려일으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국민이 되도록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근대 초기 기독교 학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워졌지만 ‘신앙을 토대로 민족과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교육목표가 너무나 확실하였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채플이나 기도, 선교활동과 같은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지도하는 모든 과목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노력하였다. 이 기독교 학교의 교과과목은 신앙교육과 성장을 위해 종교 시간이나 채플시간뿐만 아니라 역사, 음악, 체육 등의 교과수업시간에도 진행되었으며, 학생 클럽활동시간이나 학생부 활동과 같은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은 신앙심이 깊은 교사들과 그들의 제자인 학생들의 만남을 통해 신앙이 전승되었다. 학생들이 믿음의 스승을 통해 배운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민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다.¹ 대성학교를 세운 도산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실천적 사랑의 생활을 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을 하며 조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당시 기독교 학교 신앙교육의 본질이었다.²

1) 강영택, “초기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비교”, 「신앙과 학문」, 17(2), (2012), 7-37.

2) 이만열, “도산 안창호와 기독교 신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호, (2002), 46-87.

그러나 120 여 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 종교만을 가르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7 차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기독교 학교의 종교 시간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가르쳐야만 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입시를 위한 학업에 우선권 그리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에서의 종교차별 및 종교 편향 발언 금지라는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 학교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 학교의 설립목적인 학원 복음화와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³

전국의 10 개 기독교 학교의 교장, 교목, 교사 20 명에게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16 명의 참여자가 본인의 학교는 표방하는 교육 목표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고,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자료가 있다.⁴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기독교 학교 정체성에 관한 이해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들이 이해하는 기독교 정체성이란 경건의 시간, 종교수업, 교직원 예배, 학생 채플, 학생 신앙수련회, 종교클럽활동 등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현재 자신이 몸담은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응답자는 종교활동과 종교수업을 통해 외형적으로 기독교 학교로서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교과수업과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은 비기독교 학교와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포스트모던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과 문화적 상황들이 심각하게 변모해가면서 기독교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기독교 학교들이 정체성 유지를 위해 채플이나 종교 과목 정도에만 신경을 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이필요하게 되었다. 기독교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이를 통해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비 기독교학생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현실이 되었다.

3) 교육부로부터 1997 년 12 월 30 일에 고시된 교육과정으로써 특정종교의 선교보다는 전인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강조한 것으로 이를 위해 8 가지 영역 즉, 인간과 종교, 종교 경험의 이해,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세계 종교와 문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한국 종교와 문화, 종교 공동체,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4) 강영택, “기독교학교의 교육목표와 대학입시”, 「신앙과 학문」, 12(3), (2007), 9-47.

2) 연구목적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기관이라 볼 수 있다. 불신자인 학생들이나 신자인 학생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함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발견케 하고 훈련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⁵ 문제는 오늘날의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종교 교육과 특히 채플,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각종 종교활동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이거나 획일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기독교 가치관 회복, 그리고 학원 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 학교 내에서의 경건의 시간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적용하는데 있다.

2. 범위와 한계 및 용어정의

1)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기독교 학교의 학원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서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 학교의 사명인 전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실행되는 기독교 학교의 경건의 시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많은 기독교 학교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렵기에 연구자가 교목으로 재직했던 동방고등학교에서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는 104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처리에 관해서는 학생 104 명 중 104 명의 학생이 답변했고 그 중 설문지 대답이 미비한 8 명을 제외한 96 명의 답변을 분석하였기에 동방고등학교에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5) 정웅섭,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26-7.

2) 용어

(1) 기독교 학교

본 논문에서 ‘기독교 학교’란 선교에 목적을 두고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미션스쿨(mission school)’로부터 시작되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설립자들에 의해 건립된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정의한다.⁶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한국에 설립된 대부분의 기독교계 학교가 기독교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계에 속한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혹은 해외에서 파송된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학교, 또는 기독교에 속한 특정 교단에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로써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위해 일반 학과활동 외에 경건의 시간, 채플, 종교 수업, 선교활동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행하는 학교들이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을 둔 교육이념, 평가, 목적, 내용, 행정, 내용 등의 전체 교육을 위한 활동이 실현되는 학문공동체이다. 즉 교육적, 종교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선교를 위해 선교사에 의해 해방 이전에 세워진 학교를 미션스쿨이라고 정의한다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설립되어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과 학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기독교 학교라고 말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션스쿨과 기독교 교육이 복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를 기독교 학교라 정의한다.

(2) 경건의 시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건의 시간’이란 쿼티(Quiet Time)라고도 한다. 쿼티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직접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회개와 결단의 행위를 하는 등을 말한다.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의 조명 하심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6) 김희자, “기독교 학교의 본질과 목적”, 『기독교교육연구 9 권 1 집』, (서울: 총신대학부설 기독교연구소, 1998), 15.

실천한 것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이다.

기독교 경건의 시간에 대해 잘못된 이해도 있다. 아시아권의 동양사상이나 전통 신앙 등의 영향으로 불교나 유교의 수련 과정을 묵상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인도에서 유래한 초절명상(超絶冥想 :

Transcendental Meditation; TM), 혹은 Hare Krishna 운동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말씀 묵상이

범신론적이고 자신의 최면적 명상 행동과 혼동을 일으킨다.⁷ 그러나 이런 전통종교의 명상과 기독교의 묵상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통종교의 명상은 비우는 것이라고 본다면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께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며 사회악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영적인 지식을 갖게 한다.⁸ 그리고 이 묵상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천하는 훈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학원 선교

학원 선교는 학교라는 제한된 지역, 공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형성해 나가는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학교 선교란 의미가 학교 자체의 기독교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원 선교는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공동체와 문화, 그리고 역사와 과학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기독교 세계관을 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지식인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기독교 학교의 “교회 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학교는 진리를 탐구함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한다. 또한, 비록 종교 과목의 교육은 없다 할지라도 학교 공동체에

7) 송인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서울: IVP, 1984), 67.

8) Richard J.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34-5.

소속된 학생, 교사, 학교행정 등에 스며있는 종교적 분위기가 학교의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곳이다. 따라서 학원 선교란 학교 공동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이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헌신 된 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4) 청소년

청소년이란 용어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됐다. 하지만 청소년의 사전적 의미는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 세 이상 24 세 이하인 사람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 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로서, 다만, 만 19 세가 되는 해의 1 월 1 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⁹ 일반적으로 사춘기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춘기는 **puberty** 라고 하며, 라틴어의 ‘성장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청소년기는 **adolescence** 라고 하며, ‘~로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춘기와 청소년기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춘기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신체 변화와 성적 성숙을 포함하는 생리적 변화까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생물학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지만, 청소년기는 행동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숙하는 시기로서 인지적 성장과 정의적 성장 그리고 사회적 성장까지 포함한다.¹⁰

3. 성경적, 신학적 근거

기독교 학교의 경건의 시간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셨는데 이것을 경건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의미와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 의미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자료],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 년 12 월 22 일 접속.

10) 김남선 외, 「청소년 교육론」, (서울: 형설 출판사, 2003), 69-70.

본 연구에서 신학적인 기초로 사용되는 것은 선교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실천 신학적인 방법이다. 기독교 학교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 선교와 특히 경건의 시간에 대해 2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성경 신구약에 나타난 경건에 대한 단어연구와 경건의 시간과 칼빈, 존 웨슬레 그리고 청도교들이 말하는 경건의 시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 본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 12:28). 이 말씀은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경건한 삶을 사셨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님의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기독교 학교의 경건의 시간의 모범이 되며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것이다.

4.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의 효과적인 실시에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종교활동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적용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다. 기독교 학교란 무엇인지 정의와 더불어 경건의 시간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이해와 개념을 정리하고,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이 학원 선교와 기독교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한다. 본 연구는 학원선교의 현실적 문제와 한계를 느낀 기독교 학교가 학원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방법의 하나로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

1 장에서는 서론으로 문제 제기와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된 목적, 범위와 한계 및 용어정의, 성경적/신학적 근거, 연구 방법론, 그리고 문헌적 비평으로 구성된다. 2 장에서는 기독교 학교의 경건의 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해를 위한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경건의 시간의 일반적인 개념을 성경, 그리고 칼빈이 말하는 개념정리를 통해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 목적과 성격, 그리고 실시 현황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3 장에서는 기독교 학교 선교대상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청소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현대 청소년들의 둘러싼

문화에 관해 설명한다. 4 장에서는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 실시 현황에 대해 알아봄에 있어 대전에 위치한 동방고등학교에서의 적용사례를 알아본다. 현재 동방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활동과 경건의 시간,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5 장에서는 기독교 학교인 동방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건의 시간이 실행되었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 결과를 두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을 설문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 설명한다. 분석한 자료를 통해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본다. 6 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앞에서 시행한 연구를 요약하고 기독교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경건의 시간 실시에 대해 제안을 한다. 모든 연구와 분석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결론에 도달하게 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정리하며, 효과적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한다.

5. 문헌 검토

「청소년복지론」을 공저한 홍봉선, 남미애는 이 책을 통하여 청소년복지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여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지식과 기법, 프로그램, 행정 및 정책을 총망라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청소년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행정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면을 강조한다.¹¹⁾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청소년복지총론으로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청소년복지의 실천을 위해 청소년 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에 관한 각각의 개념정리와 의의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청소년의 비행과 그 실태를 파악 후, 대책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청소년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복지각론에 대한 부분으로 청소년의 성문제, 시설보호 청소년문제 가출청소년문제, 학교폭력 청소년문제, 집단 따돌림문제, 학교밖 청소년문제, 약물남용 청소년문제, 청소년 상업적

11)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복지론」, (경기: 양서원, 2000), 7.

성착취문제, 청소년 인터넷 과다 사용문제에 대한 개념 정리와 유형, 원인과 실태, 그리고 당면문제와 대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가 공저한 「청소년복지학」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국경없는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약(FTA)로 인한 국제 정보 및 문화, 인적 교류가 활발한 상황 속에서 치열한 입시경쟁과 청년실업 및 취업의 문제 등으로 생존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21 세기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다학문의 전문가들에게 이론과 실천,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¹²⁾

청소년복지의 이해, 문제와 개입전략, 향후 과제등을 살펴 보기 위해 청소년의 개념, 특성, 발달이론과 환경, 복지의 필요성,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청소년복지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일반체계이론, 인지행동이론, 해결중심이론, 위기개입이론 등을 제시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실태 및 당면과제, 그리고 가출 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인, 청소년의 약물남용, 학교폭력, 우울과 자살, 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청소년복지의 향후 과제인 관련 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김진화 외 10 인이 공저한 「청소년 문제행동론」에서 정의하는 문제행동이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법과 규범에 위배되는 일탈행동과 범죄, 가치 기준에서 탈락한 이상행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을 말한다.¹³⁾ 그러나 청소년 문제행동을 정의 할 때는 반사회적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위험행동 등 비사회적 행동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¹⁴⁾

이 책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과 영역 및 원인, 성격, 학문적 성격과 영역을 설명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론의 학문적, 이론적 기초를 세웠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가정 부적응, 학교부적응, 폭력행위, 유해약물 오용 및 남용, 성일탈, 유해미디어 이용, 유해시설 접촉, 범죄 등의 영역에서 각 부분에 대한 개념과 실태, 유형,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12)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 「청소년복지학」, (경기: 집문당, 2004), 3-4

13) 김진화 외, 「청소년 문제 행동론」, (서울: 학지사, 2002), 16.

14) Ibid., 18.

특히 저자는 청소년기에 비행과 탈선의 위험성은 인생의 발달단계상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에 대해 성인들은 우발적이고 호기심에 사로잡혀 일시적으로 저질러진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¹⁵

「기독교 강요」는 종교 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이 그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위해 탄원하고 진리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박하기 위해 프랑수아 1 세에게 보낸 글로써 신학을 체계화하여 정리했다.¹⁶ 특히,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을 참된 경건의 형성에 두고 성도가 추구해야 할 순결한 사랑과 양심, 경외심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 율법, 특히 십계명에 관한 해석과 칭의,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했다. 이 부분에서 칼빈은 거짓 종교와 참된 종교의 차이점, 사람의 자유 의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서, 인간의 소망과 고통, 기쁨을 고함으로 성도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에 대해 강조했으며 이 외에 성만찬과 성례의 집행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짓 성례에 대해 반박했고 기독교인의 자유와 교회의 권세, 그리고 정치 조직에 관해 상세히 서술했다.

그리고 칼빈은 「칼빈의 경건(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에서 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⁷ 진정한 경건이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하고 믿음이 있는 감정이다. 경건한 자는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을 찾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한다.

이렇게 경건에 대해 정의한 후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했고, 둘째로 자신이 이해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한

15) Ibid., 4.

1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8), 38.

17) John Calvin, 「칼빈의 경건(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25.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한 기도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칼빈은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기록된 율법,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결국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신 특별계시인 성경만으로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의 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기도와 찬송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심지어 칼빈은 찬송가를 자신이 직접 번역하기도 했다. 그만큼 찬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 그리고 찬송을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도구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로오(William Law)는 자신의 저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도를 강조한다.¹⁸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며 기도는 영원의 가장 고귀한 훈련이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기능들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복된 백성들을 가장 잘 본받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⁹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 찬양을 들고 있는데 찬미의 노래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위한 분명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없는데 마음의 둔함을 불식시키고 영혼을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정육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늘을 열어서 심령을 하늘에 그렇게 가깝게 하여 주는 것이 없다라고 설명한다.²⁰ 더불어 저자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의미의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로 경건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²¹ 따라서 기독교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 찬양과 기도의 순서가 포함되도록 구성한다면 기독교인 학생들의 신앙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불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매일 시간을 정하여 학교 안에서 경건의 시간을 실시한다면 비록 본인의 경건한 삶에

18) William Law, 「경건한 삶을 위하여」, 서문강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166.

19) Ibid., 166.

20) Ibid., 175.

21) Ibid., 52.

대한 의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매일 진행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자세가 변화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김원태는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에서 큐티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데이트이며 탁월한 인생의 비결로써 인생의 암흑기를 벗어나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설명한다.²² 그리고 앞서기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고 비전과 열정의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는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한다. 반대로 유의할 점에 대해서는 첫째, 지나치게 지식적으로 하지 말 것, 둘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것, 셋째, 기도와 말씀을 병행할 것, 넷째, 묵상한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 외에도 큐티의 방법과 깊이가 있도록 만드는 묵상 방법 즉, 시편과 잠언 매일 읽기, 주제별, 인물별 묵상과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자신의 책 「경건」에서 크리스천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으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²³ 첫째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수단을 열심히 쓰라는 것이다. 둘째는 세상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셋째는 거룩한 생각이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권면한다. 넷째는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다섯째는 소중한 시간을 사용함에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한다. 여섯째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체류하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한다.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이란 너무도 짧은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된다. 일곱째, 우리가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성도의 창조된 목적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로지 입고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덟째, 성도는 언제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경건의 불을 댕기는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거룩한 불꽃이 나 자신에게로 옮겨붙기 때문이다. 기독교 학교에서

22) 김원태,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서울: 두란노, 2002), 19-32.

23) Thomas Watson, 「경건」, 김동완 역,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 사람, 2015), 314.

불신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첫 번째, 즉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것과 세 번째 거룩한 것들이 자신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권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시행되는 경건의 시간, 그리고 이 경건의 시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를 지은 A. T. 피어슨(A. T. Pierson)은 이 책에서 경건을 이루려는 방법으로 15 가지를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²⁴ 이 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고, 애정, 기분, 성향, 열정, 말, 행위, 태도, 독서, 신앙, 습관, 교우 관계, 신경, 오락, 목적이다. 특히, 습관의 통제 부분에서 습관이란 항구적으로 굳어버린 사고나 감정이나 선택을 의미하며 처음에는 우연한 것이 반복 때문에 습관적이 되며 이렇게 되면 본래는 본능적인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점차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⁵ 성도가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습관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저자는 나쁜 습관을 없애거나 교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것을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신앙을 가지지 않고 입학한 불신자들이다. 이 학생들에게 매일 매일 행해지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기독교적 습관을 지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기독교 학교의 설립목적인 기독교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앙성숙과 영성(제자)훈련」의 저자 로렌스 리처즈(Lawrence Richards)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결하게 정의한다.²⁶ 그리고 그는 영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성이란 우리가 어떤 몇 가지 것들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대하여 살아 있으며 역사의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그와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인간들에 대하여 살아 있어야 하며 역사상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인간들과 진실한 개인적 차원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24) A. T. Pierson,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김지찬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4.

25) Ibid., 110.

26) Lawrence Richards, 「신앙성숙과 영성(제자)훈련」, 지상우 역, (서울: 여수론, 1989), 13-8.

것을 의미한다.²⁷

저자는 이러한 영성의 개발을 위해 개인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들어 자신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마음의 기도와 공동예배를 통한 친밀성 확립, 자신의 죄성에 대한 자백과 용서, 주님의 주님되심에 대한 선택과 자유, 죽을 수 밖에 없음. 거룩한 삶에 대한 개인의 도덕성과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도와 섬김의 도로로서의 헌신에 관해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다.²⁸

논문을 통한 선행 연구로서 홍원표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소년 영성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경건 교육의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시에 사는 기독교인인 청소년들 468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²⁹ 이 조사를 토대로 영성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영성 교육의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교육내용으로 성경의 연구, 자연환경의 보존,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학습과 문화(미디어)를 강조, 그리고 자아를 탐색하는 것 등을 정하였다. 그 외에 청소년 영성 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을 7 단계, 즉 무브먼트, 곧 침묵하기, 발견하기, 창조하기, 머무르기, 양분주기, 일치하기, 축하하기 등으로 구성하고 현장과 교사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공동체, 즉 예배, 가정, 학교, 사회, 소그룹, 사이버 등으로 6 개의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성 교육은 기존의 기독교 학교가 실시해 오던 종교교육과는 달리 사고와 가치관이 다르고 변화된 생활의 형태를 보이는 포스트모던 시대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영성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김진홍은 “한국교회 경건 훈련으로서의 QT 연구와 적용 방안”에서 기독교인들의 경건이 자신과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대표적 경건 훈련으로써 QT 를 제시한다.³⁰ 수많은 성도의 경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면서 성경

27) Lawrence Richards, 「신앙성숙과 영성(제자)훈련」, 19-20.

28) Ibid., 418.

30) 홍원표, “포스트모던시대의 청소년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 대학원, 2014), 2.

31) 김진홍, “한국교회 경건훈련으로서의 QT 연구와 적용 방안”,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2007), 1.

이외의 다른 참고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 대해 오직 성경의 원리,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지향하는 하나님 중심의 원리, 말씀하시는 분인 하나님과 듣고 결단하는 자로서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지향의 원리, 자신의 지성과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연구자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경건의 시간인 QT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은 청장년층을 대상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학생층, 즉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그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학원 선교를 통한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쇠퇴해가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삶의 목적이 흐려 저가는 청소년들에게 꺼져가는 불씨를 밝혀주는 방법의 하나로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을 제시하는 것은 경건의 시간을 통한 분명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한국의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에 대해 연구하며 특히 대전에 자리한 동방고등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을 연구, 분석하여 건강한 기독교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학원 선교에 힘쓰고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경건의 시간 개념 이해와 기독교 학교내의 현재 상황

1. 경건의 개념 이해

경건의 시간 개념 이해에 앞서, 경건이 의미하는 사전적 정의는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뜻을 가진다.³¹ 경건이라는 말은 주로 종교적인 언어로 많이 쓰이는데 이 말은 사전적 의미와 같이 엄숙하고 조용하며 무거운 단어의 이미지를 갖는다.

경건은 기독교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의 하나로 개인의 영적 상태나 느낌을 말하기보다는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을 표현하는 것, 즉 신앙훈련을 지속해서 실천하는 행위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자세를 가짐과 동시에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건을 위해 시간을 갖는 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한다.³² 이 경건의 시간은 영어로 **Quiet Time**이며 우리는 이 약자인 **QT**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1) 성경에서의 경건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총 68 회 사용되었다. 구약성서에는 20 회, 신약성경에는 48 회가 사용되었다. 성경 안에서 사용된 경건이란 단어는 신앙의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경건’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하시드(חַסִּיד)’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대부분 형용사로 사용되지만, 동사와 명사로도 사용된다. 동사로 사용된 경우 ‘하사드’(חֲסִיד) 인데 사무엘하 22 장

חֲסִידִי

3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자료],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 년 12 월 16 일 접속.

32) 이상덕, 「경건과 실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17-9.

26 절에 나타난다.³³ 그 뜻은 “친절하다, 선하다”³⁴, “충성스럽다”³⁵ 이다. 히트파엘() 단어의 의미가 “충성스럽게 행동하다”³⁶ 또는 스스로 친절함이나 충성스러움을 나타낼 때,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뜻으로 사용된다.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하시드(חֲסִיד)는 ‘독실한’³⁷ ‘충성스러운’³⁸ ‘친절한’³⁹으로 사용된다. 명사로는 형용사로서의 하시드(חֲסִיד) 그대로 사용하거나 복수형태로 쓰이는 하시딤(חֲסִידִים) 쓰이는데 이것은 ‘헤세드’를 실천하는, 행하는, 베푸는 사람을 나타내므로 하시드는 ‘독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⁴⁰, ‘충성스러운 사람’⁴¹의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헤세드(חֶסֶד)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공동체 유지와 증진을 위한 행위⁴²로 우정, 자매, 의리, 총애, 효 등으로 번역⁴³되는 세속적인 용법이 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인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신실함의 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헤세드’인 충성, 경건, 사랑, 헌신으로 해석되는 종교적인 의미의 용법이 있다.⁴⁴ 그러므로 ‘하시드’의 명사인 ‘하시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란 뜻인데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 백성, 언약을 맺은 자’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욥의 삶을 잘 나타내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33) David J.A. Clines,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III」,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77.

34) Walter Baumgartner and Hohann Jakob Stamm,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I」, tr. And ed. M.E.J. Richardson, (Leiden: E. J. Brill, 1994), 336.

35) David J.A. Clines,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III」, 277.

36) Walter Baumgartner and Hohann Jakob Stamm,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I」, 336.

37)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r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 trans. David E. Green,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86), 75.

38) David J.A. Clines,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III」, 211.

39)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72), 339.

40) Walter Baumgartner and Hohann Jakob Stamm,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I」, 337.

41) David J.A. Clines,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III」, 282.

42)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r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 46-51.

43) 박동현, “경건에 대한 구약성경의 가르침”, 「부르심과 경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300.

44)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38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욥기 1:8) 에서와 같이 욥의 태도로 잘 알 수 있다.⁴⁵ 욥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늘 주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의 정욕과 허영을 제거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썼다.

결론적으로 구약성경에서의 경건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즉, 상호 간의 언약체결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건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신약성경에서 ‘경건’은 바울이 자신의 조력자이자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테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사용했다. 바울은 디모테전서 4 장 7~8 절을 통해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7~8). 이것은 디모테를 향한 목회적 차원의 권면이자 명령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경건’으로 사용된 ‘*ευσεβειαν*’과 ‘연습하라’로 사용된 ‘*γυμναζε*’이다. 여기서 *ευσεβειαν* 은 15 회 신약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13 회가 목회 서신에서 사용되었고 특히 디모테전서에서만 9 번이나 사용되었다. 이것을 Trench 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건성의 내용이 되는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했고 Calvin 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⁴⁶

다음으로 연습하라고 사용된 ‘*γυμναζε*’는 ‘벌거벗다’(히 4:13)란 뜻을 지닌 ‘*γυμνος*’에서 파생한 동사로서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뜻을 지닌 ‘*γυμναζω*’의 현재 명령법이다.⁴⁷ 이 단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바로 체육관의 뜻으로 사용되는 ‘*gymnasium*’이다.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격투와 달리기 등에서 모든 옷을 벗고 경기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⁸ 각 도시마다 레슬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이것을 즐겼던 사람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인데 이 시대의 플라톤도 레슬링을

45) 김정준, “히브리 경건 연구”, 「신학연구」, 제 17 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6), 40.

46)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4), 214.

47) Ibid., 214.

48) Ibid., 214.

즐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교육기관에서도 필수과목으로 정할 만큼 레슬링을 좋아했다고 한다. 이 레슬링 경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알몸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B.C 2400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 5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 벽화 중에서 프타호텝의 아들인 아체토텝이 자신의 벗과 함께 알몸으로 레슬링을 하는 그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⁴⁹ 바울은 이런 운동경기에 관해 디모테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연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디모테에게 강조하면서 그 역시도 경건을 위해 운동선수와 같이 연습해야 함을 ‘ευσεβειαν’과 ‘γυμναζε’을 사용하여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 즉 개역한글, 표준 새번역, 개정 개역에서의 ‘ευσεβειαν’과 ‘γυμναζε’가 사용된 것은 다음과 같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새번역에서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라고 또한 개역 개정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번역되었다. 세 번역본에서 ‘ευσεβειαν’은 한 단어인 ‘경건’으로 번역되었고, ‘γυμναζε’은 각각 ‘연습하다’, ‘훈련하다’, ‘연단하라’라는 세 단어로 각각 번역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별 무리 없어 보이지만 이 중 ‘연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경건’과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연단의 뜻은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 갑자기, 혹은 불특정한 기간 발생하는 환란을 통해 얻게 되는 성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경건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단어는 ‘연습’이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인 것은 아니다. 의미의 큰 차이가 있다. ‘연습’은 주로 실전에 임할 때를 생각해서 미리 실전과 같은 상황인 것처럼 반복하고 그 동작을 익히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다. 반면에 ‘훈련’은 실제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력이나 기본적인 동작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 연습한다거나, 연습하여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변화됨으로 경건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경건에 이르기 위해 연습한다는 것보다 훈련받는다라는 표현이 옳은 것이다.

49) 구효송, 「신들의 축제, 고대 올림픽」, (서울: 상아기획, 2006), 78-84.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경외심, 사랑, 그리고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 단어를 레슬링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 힘든 훈련을 한다는 의미인 ‘벌거벗고 연습하다’란 뜻의 ‘γυμναζω’의 현재 명령인 ‘γυμναζε’를 사용함으로써 경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칼빈의 경건에 대한 개념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을 경건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 같은 경건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성급하게 어떤 신을 고안해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에게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며 그가 자신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⁵⁰

칼빈은 위와 같이 경건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서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주의의 주요 주장은 전적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이다. 칼빈의 전적타락이란 교리에 의하면 우리 스스로는 경건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진짜 경건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이 주장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성악설의 주장으로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경건함에 이를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5 대 교리 중 제한적 속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값을 스스로가 희생물이 됨으로써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사하셨고 이를 통해서

50) John Calvin, 「칼빈의 경건(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25

우리의 믿음으로 형벌들과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짐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을 얻었다고 한다. 성경 역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셨다’(엡 1:4)고 증거로 제시한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통한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경건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 곧 진리의 말씀과 그에 대한 건전한 가르침이 경건의 규칙(the rule of piety)⁵¹이라 하였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물론이고 사람에게 착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을 말하였다.⁵² 따라서 칼빈이 주장하는 경건은 개인적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경건 즉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경외심, 순결한 양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계승하면서 더 나아가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⁵³ 이 사실은 그가 저술한 『기독교 강요』에 적힌 저작 동기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저의 목적은 어떤 몇 가지 기초적인 원리들을 기술하여 종교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이를 통해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칼빈은 경건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경건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온전한 열심과 능력을 쏟아 경건에 헌신하는 것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칼빈은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태도로서 경건을 설명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는 심판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두렵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더불어 사랑하면서 스스로 경건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경건이 하나님과 성도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나타나는데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51)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Acts of the Apostles 14-28, trans. John W. Fraser, (Grand Rapids: W. B. Eerdmans, 1973), 95.

52)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244.

5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양낙홍 역, 175.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인해 훈련돼야 한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건한 신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며 교회에서 시행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함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존 웨슬리의 경건에 대한 개념

존 웨슬리(John Wesley)도 경건에 대해 강조함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경건이란 그 기초를 하나님의 본성에 두고, 이것으로부터 인간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하는 측면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그분을 섬기고 뜻을 행하여 결국 순종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⁵⁴ 웨슬리는 참된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경건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뜻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감리교 인의 성격(Character of a Methodist)’을 설명하면서 참된 신앙이란 지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한정돼서는 안되며 개인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실천을 통하여 표현되는 ‘마음과 삶의 경건’을 의미하는 것임을 가르쳤다.⁵⁵ 이것은 웨슬리가 자신의 기독교적인 삶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생활과 마음의 경건을 통한 신앙형성’은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과 함께하는 것이라 믿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가정에서 소그룹 사역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찰스 웨슬리 즉 자신의 동생과 함께 감리교 인들이 경건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54) John Wesley, “이성적이며 종교적인 인사들에 대한 간곡한 호소문”, 「존 웨슬리총서 9」, 송홍국 역(서울: 유니온 출판사, 1983), 280.

55) Ibid., 35.

웨슬리가 말하는 참된 신앙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가 말하는 경건 훈련 속에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 가난과 질병, 그리고 박해받는 이웃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공훈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웨슬리가 신자의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웨슬리가 실천한 구체적인 경건 훈련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신앙 공동체를 통한 경건 훈련으로써 기도(Prayer), 성경탐구(Searching the Scriptures),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 금식(Fasting), 그리스도인의 교제(Christian Conference)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통한 경건 훈련으로 돈의 사용과 구제활동, 의료봉사활동, 감옥 죄수들을 위한 활동, 교육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성결한 삶을 위해 성서적 규칙, 교리적 규칙, 실천적 규칙 등을 정하였고 경건한 삶의 실천을 위해 지도력 훈련, 신앙공동체를 통한 경건 훈련, 이웃을 통한 자비훈련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웨슬리는 경건의 훈련에 있어 성경의 규칙에 기반으로 둔 실천을 강조했으며 올더스게이트 회개를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 훈련의 진정한 출발은 바로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 훈련을 위해서는 소그룹의 역할이 크다는 것,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4) 청교도들의 경건에 대한 개념

청교도들의 경건은 영국을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위해 성도 개인의 거룩한 삶을 확립하며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자신의 가정을 섬기고 다스리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통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시간을 정하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한 사람들이었다. 청교도 연구가인 제임스 패커는 설교와 기도, 교회의 변화를 위한 계획들의 추구,

선교와 팸플렛(소책자), 그리고 지방학교와 가정으로부터 대학들에 도달하는 모든 수준에서의 각성이 일어나도록 전력을 다했던 것'을 청교도주의의 진수라고 규정했다.⁵⁶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에 관한 교훈을 열심히 받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음으로 영적으로 채움을 입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다.

그들의 중심에서는 경건의 시간이 항상 채워져 있었다. 제임스 팩커는 청교도들의 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교도들이 말하는 경건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겸손인데 이것은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함께하며 끊임없이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교화된 자기 낮춤이다. 둘째는 수용성이다. 이것은 자신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낸 것들에 의해서 가르침과 수정과 지도를 받는 개방성과 즐거운 섭리들에 의해서 격려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실망과 내적인 황폐의 어두움에 의해서도 연단을 받으려는 자발성과 원숙하게 하시는 미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평탄한 것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것까지도 바른 모양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자세라는 의미에서의 수용성이다. 셋째는 송영이다. 이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예배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이다. 넷째는 원동력,

즉 청교도의 진정한 도덕적 행위의 영적 원동력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에 앞서 행해져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게으름과 수동적인 태도를 비 신앙으로 정죄하였다.⁵⁷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하고 있던 청교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은총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세워진 목적을 향해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인간의 전적타락으로 인한 부패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중생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성경의 약속을 청교도들은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의 경건이란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회개이며 육신과 싸워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큰 승리를 얻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윤리적으로는 한층 성숙해져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56) J. I. Packer, 「청교도사상」,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458.

57) Ibid., 460.

청교도들이 상당히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개인의 영적인 부분들과 교회 개혁에만 상당히 깊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청교도들에게는 학문적인 깊이가 얕고 넓이가 협소하다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대학 출신이 대부분으로 그 시대에 해박한 지적 능력을 갖췄던 목사들에 의해 청교도 운동은 주도되었고 이들은 성경 주석이나 그 당시에 쟁점화되었던 신학적 논쟁, 그리고 라틴어 논쟁에서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뛰어난 수준의 학문적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이 목사들은 영국국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침체로 인해 허덕이던 성도들의 삶 속에 지적, 그리고 영적 갱신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독일에서 경건 운동의 불을 댕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5) 경건의 시간(QT)에 대한 개념 이해

경건의 시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자. 윤종하는 성경을 양식으로 섭취하는 길이며, 이를 위하여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한 후에 겸손히 응답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서의 묵상의 시간을 QT 라고 정의하였다.⁵⁸ 이상규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뜻, 계획)을 듣고 묵상하여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이라고 정의하였다.⁵⁹

김원태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⁶⁰ 라채광 씨는 하나님과의 실제 생활 안에서의 교제로 라고 간단히 정의해 놓았다.⁶¹ 진 플레밍(Jean Fleming)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루 중 하나님을 위한 떼어 놓은 시간, 즉, 개인적인 예배시간으로 정의한다.⁶² 켈리 클라크(Kelly. J. Clark)와 존 알렉산더(John W. Alexander)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매일 은밀한 만남을 갖기 위해 정해 놓은 시간으로

58) 윤종하, 「묵상의 시간」, (서울: 성서유니온, 2005), 10-4.

59) 이상규,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큐티」, (서울: 두란노, 2000), 11.

60) 김원태,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19-24.

61)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서울: 두란노, 1990), 10.

62) Jean Fleming, 「Quiet Time 으로의 초대: 경건의 시간(Quiet Time)을 위한 지침서」, 네비게이트 선교회 역, (서울: 네비게이트, 2002), 21.

정의하였다. 워렌 마이어즈(Warren Myers)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하였다.⁶³

이 정의 중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교제 중에서도 개인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경건과 칼빈, 웨슬레, 청교도들 등이 주장하는 경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것은 경건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는 경건의 시간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정의한다.

(1) 경건을 훈련하는 방법으로서의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QT)은 경건을 훈련하는 방법의 하나다. 그리고 QT의 시작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시작한다. 그 음성을 들은 성도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하나님을 음성을 들음, 즉 말씀을 통해서 결단함으로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결단은 그 선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QT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도구나 능력을 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된다.

QT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눔이다. 그동안 QT는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경건은 ‘스스로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와 하나님과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오해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QT를 하면서 나눔을 주고 받는다. 이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성경적 근거와 칼빈, 웨슬레, 그리고 청교도들의 경건 삶에서도 나타난다.

64) Kelly Warren Myers, 「경건의 시간을 갖는 법」, (서울: 네비게이토, 2002), 11.

따라서 QT는 개인 스스로 경건의 훈련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 차원에서의 훈련으로 확장된다. 경건을 향한 훈련은 나눔으로 이어진 공동체를 지향하고,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간의 교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나눔은 하나님과 개개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경건에 도움을 준다. 또한, 나눔은 주관적으로 얻은 생각이나 잘못된 것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정하는 역할도 한다.

(2) 구약에서의 경건의 시간

성경 중 구약에서는 QT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모세의 경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서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레 8:4)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회막(the Tent of Meeting, NIV)에서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출 7:6)는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주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출 33:11)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친밀하게 서술해 놓았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구름으로 들어가 40 일을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볼 수 있다(출 24:16~18).

여호수아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수 1:8)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서 적용하라고 명령하셨다. 또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수 1:10) 를 보아 하나님이 말씀을 백성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을 볼 수 있다.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한 굳센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창 24:63). 조용한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시편 23 편을 통해서 표현했다.⁶⁴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 : 10)를 통해 알 수 있다.

구약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을 뿐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3) 신약에서의 경건의 시간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QT 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별된 시간에 은밀한 곳에서 가지셨다(막 1:35).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QT 를 가지셨다. 눅 22:39 절을 보면 쉼을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 22:39, 42)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셨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 QT 는 나의 힘듦과 걱정들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는 좋은 예이다.

성경은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 대”(행 10:22).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64) 이학재, “기도의 매뉴얼로서 시편 1 권(1~14 편)에 나타난 개인적 부흥의 신학적 접근.” 『성경과 신학』, vol 43,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7), 29.

앞에 상달 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행 10:4). 그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경건의 사람이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도 경건의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눅 2:25). 여기서 ‘의로운’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이란 뜻이고, ‘경건한’은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헌신 된’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 된 삶을 산 경건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⁶⁵ 신약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다.

2.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 목적과 현재 상황

본 논문에서는 종교교육과 선교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 실시를 통해 학원 선교와 기독교 가치관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 학교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건립된 학교를 우리는 기독교 학교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은 기독교 학교라는 말보다는 미션 스쿨(Mission School)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연세대와 이화여대, 한동대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여러 중고등 미션스쿨과 기독교대안학교들도 기독교 학교라고 불리고 있다.⁶⁶

기독교 학교 중에 미션스쿨이 있다. 고용수는 학교 설립 목적이 학들의 교육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를 미션스쿨로 보고 있다.⁶⁷ 이 말은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사로서 볼 수 있고, 설립자가 관련된 교단과 연계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하고 선교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그래서 미션스쿨에는 대표적으로 채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65)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vol 106, (서울: 제자원, 2004), 226.

66)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43.

67) 고용수, “이것이 기독교학교다”, 「기독교학교교육」, 제 1 집, (서울: 기독교학교협의회, 1988), 50.

또 다른 형태로는 기독교 대안학교(Christian Alternative School)가 있다. 대안학교 중에서 설립 이념의 기독교 정신인 ‘사립 공교육학교’인데 전광식은 기존 교육에 성경공부 등만을 넣어 교육하며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부르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교육과정들이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이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교육을 탈피해서 교육 과정 편성이 더욱 자유로운 대안학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교육할 학교가 필요하고, 이런 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⁶⁸ 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미션스쿨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모두 말해 기독교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1)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 목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이 행해졌던 곳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현장이며 수행하는 주체였다. 하지만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현시대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이러한 가정에서의 교육적 역할을 감당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졌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은 교회나 학교로 전가되었다. 교회 교육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이다. 반면에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고작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에 불과하다. 기독교적 교육을 가정과 그들의 회당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의 신앙교육 현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정이나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독교 학교에서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는다면 짧은 시간 동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학교이기에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에서는 채플과 수업을 통한 성경공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교육을 통해서만 기독교 학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채플과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행해지는 기독교 영성 훈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중에 하나가 QT 이다. 임창복은 기독교적 영성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영성이란 초월적 실재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인간 자신을 넘어선 궁극적 실재와

68) 전광식, 「기독교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그 원리와 실제」, (서울: 독수리교육공동체, 2006), 29.

경험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경험은 신비적 현현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데, 이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활기차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현현에 응답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창조주, 섭리 주, 구속 주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으로 가능하다. 이런 만남의 경험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력과 통찰력을 갖게 함으로써 새로운 소망, 믿음, 사랑의 삶을 살게 한다.⁶⁹

기독교적 양육은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적 의미를 기독교적 삶의 형태로 구체화하면서 발달시켜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영성이 지향하는 “모든 삶을 생기있게”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근본으로 하는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를 개인보다 강조”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적 양육의 최고 원리는 삶의 형태와 신앙의 의미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통한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맥을 같이 한다. 무엇보다도 양육의 대상인 청소년들의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종교적 성숙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전인적인 것이 필요하다. 바바라(Barbara E, Bowe)는 “근본적으로 영성은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의 인간이 되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 라고 설명한다.⁷⁰ 이것은 영성 교육이 청소년들의 종교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조화롭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성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인 QT를 기독교 학교에서 잘 운영한다면 학원 선교와 재학생들의 기독교 인성함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채플과 성경공부, 수업시간은 일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지만, QT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QT 나눔을 통해서 학생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진다. QT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모임으로 발전한다. 윌리엄 로오(William Law)는 경건을 위해 기도와 찬양을 강조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유익한 통로요,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 그리고 찬양은 죄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여

69) 임창복, “기독교 영성 교육의 방향”,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48.

70) Barbara E, Bowe, 『Biblical Foundation of Spirituality』, (New York: A Sheed & Ward Book, 2003), 10.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임을 설명한다.⁷¹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를 확실히 알고 나아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학생이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은 채플과 성경공부를 통해 이루어진 학생들의 마음 밭에 뿌려진 씨앗을 좀 더 빠르고 올바르게 싹을 틔우고 가꾸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쌍방적인 교제를 통한 성숙을 끌어냄으로써 한층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그들이 학교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 시행 방법

기독교 학교 내 학생 중에는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학생들도 많다. 이런 학생들은 QT 훈련을 해야 하기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QT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학생은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QT를 소개하고 이질감이 없게 설득력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일컫는 사춘기 시기이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주어야 하는데 먼저 그 학생들이 인정하고 설득되어야 한다.

또한, 너무 무겁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다.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하신다. 하지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분별하게 읽게 되면 쉽게 지칠 수 있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지도자가 성경이 핵심내용과 너무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은 내용을 미리 발췌하고 학생들에게 QT 내용으로써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중심으로 학년별로 체계적인 QT 내용을 제공한다면 학생들도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72) William Law, 「경건한 삶을 위하여」, 166-75.

그리고 시간 선택을 잘해야 한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시간 외에도 보충수업시간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다. 이 말은 학생들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으며 자기 자신들만의 시간과 장소를 갖기 힘들다. 환경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경건의 시간을 학교 내에서 갖게 하기란 힘들다는 것이다.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장소마련 및 시간 확보 등이 중요하다.

3. 기독교 학교 종교 교육 현황과 경건의 시간 실천을 위한 현실적 문제

기독교 학교들은 주로 채플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한다. 교목 목사를 세우던지 학교에서 신앙이 있는 선생님들을 세워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학생들에게 채플 외에 다른 시간에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또한 원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성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학생들에게 QT에 대해 관심을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다. 요즘 학생들은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여러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접하기 쉬운 상황이며, 또한, 공부와 대입 수능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QT 시간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에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다.

1) 기독교 학교별 종교 교육의 시행 현황⁷²

여러 기독교 학교들은 주로 예배를 중심으로 종교수업을 하고 있다. 아직 대전광역시 내에는 경건의 시간을 신앙교육으로 시행하는 학교는 없다. <표 1>을 보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1 주일에 한 번 주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종교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종교 시간을 편성해서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교목 목사가 다른 과목을 담당하시면서 일괄적으로 종교라는 측면에 힘을 쏟기 힘들다.

72)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내 중, 고등 기독교 학교 교목 및 종교담당 선생님에게 문의해서 제시된 자료이다.

<표 1> 대전광역시 기독교 학교 종교 수업 및 예배 현황

학교명	수업	예배
동방여중	창조적 체험학습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전 학년 수업.	매주 수요일 6 교시(3 학년), 7 교시(1,2 학년), 매주 금요일 방과 후 교직원 예배
대성중	없음	전교생 및 교직원 주 1회 예배
대성여중	없음	전교생 및 교직원 매주 월요일 7교시 예배
대신중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수업	전교생 및 교직원 주 1회 예배
호수돈여중	없음	매 월 2, 4주 전교생 및 교직원 예배
동방고	주 1회 1학년들만 수업	매주 목요일 7 교시 교직원 예배 매주 목요일 8교시 전교생 예배
대성고	없음	전교생 및 교직원 주 1회 예배
대성여고	1학년 11학급 중 선택으로 7학급만 수업	학년별로 주 1회 예배
대신고	주 1회 1학년들만 수업	매월 1, 3주 전교생 및 교직원 예배
호수돈여고	주 1회 1학년들만 수업	매주 1, 2학년 학생들만 드리고 3학년은 특별한 날에만 드림. 교직원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2)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 실천을 위한 현실적 문제

현재 우리 사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우선주의, 성적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신앙을 가진 선생님들조차도 학생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성적과 학교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독교 학교일지라도 종교에 관련된 활동들이나 QT 모임은 당연히 배제되는 실정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 학교 이사진들이 학교 건립 이념과 맞게 학교를 운영하고 싶어도 견제세력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 건립 이념을 투영시키고 싶어도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녀들의 성적향상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중고등 기독교 학교는 점점 그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표 1>을 봤을 때, 공통적인 것은 학생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은 주당 1 시간

예배시간뿐이다. 다른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은 할애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중학교는 매주 드리는 실정이지만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격주에 한 번이나 학년별로 차등을 두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건학 이념과 학생들의 동의로 정규 수업 이외 시간을 편성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이외에 학생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학교 측에서도 힘들 것이다. 이런 면에서 QT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QT 훈련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진 시간은 학생 개인적으로 재량을 주어 해결할 수 있지만, 장소를 학교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목 단독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건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목 목사 한 사람에 주어진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QT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성적이 우선시 되는 현재 학생들의 공부 시간에 신앙교육을 하기 힘들며, 학교에서 QT 훈련을 정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시간을 부여하고 QT를 진행한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으면 학생들이 QT를 할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경건의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즉 구약에서의 경건, 신약에서의 경건, 그리고 칼빈과 존 웨슬리, 청교도들이 말하는 경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경외심, 사랑, 그리고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 기독교 학교의 상황에서 채플과 성경공부만으로 기독교적 인격을 함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보완하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기독교 학교에서 실시한다면 기독교 학교로서의 설립목적인 학원 선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충분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의 기독교 인성함양과 신앙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선교 대상으로서의 현대 청소년에 대한 문화적 이해

1. 청소년의 정의와 특성

1)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농경사회는 없었고 산업혁명과 의무교육 시작으로 인식되기 시작되었다.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주며 청소년을 산업사회에서 교육대상으로 보호하며 본격적으로 청소년기를 인식하게 되었다.⁷³

청소년의 단어적 의미는 영어로 ‘adolescence’는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adolescere’에서 유래되었다.⁷⁴ 한편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9 세 이상 24 세 이하의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 3 조 제 1 호). 사회학의 측면에서는 쉐키스(H. Schelsky)가 청소년기를 회의 세대로 보고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단계로서 아동의 역할은 더는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이다.”라고 정의하며 청소년기의 연령을 14~25 세로 규정하고 있다.⁷⁵

정하성은 위의 것과는 다른 교육학적 측면에서 포겔러(Poggeler)는 인간성장 과정에 관해 청소년기만을 따로 분리해서 개념화될 수 없고 ‘이것이 청소년이다’라는 정의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청소년기를 단순히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⁷⁶ 김진화는 지칭하는 표현을 흔히 두 가지, 즉 adolescent 와 youth 로 사용하는데 아이덴(Idem)은 adolescent 라는 개념이 발달 심리학에서 도출되어, ‘육체적으로 급성장하고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성과 자아개념이 성숙하는 시기로

73)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복지론」, 19.

74) Ibid., 19.

75) 정하성,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자유출판사, 1989), 26.

76) Ibid., 26.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발달단계’로 지칭하였다.⁷⁷ 반면에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는 youth 는 후기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사회 심리적 부산물로,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적 성취를 요구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인생주기로서 청소년의 자율성과 책임성, 권익 옹호와 참여 및 시민성 등을 강조하였다.⁷⁸

<표 2> Adolescent 와 Youth 의 개념에 관한 비교⁷⁹

Adolescent	Youth
인간의 발달론적 관점 생리학적인 발달 부분 강조 유보된 시민권의 강조 과도기적 특성의 강조	사회 심리적 관점 사회·심리학적인 생활 관점 강조 고유한 청소년 시기의 특성 강조 청소년의 인권과 책임강조

이 두 단어의 개념을 비교하고 아동에서부터 성인이 되어가는 청소년기를 과도기적 존재와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youth 의 개념을 기본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지역교회와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중학교 1 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 학년까지를 하나로 보고 청소년부(중고등부) 교육적인 구조를 투영시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한다.

2) 청소년기의 특징

2 차 성징이 시작되는 청소년은 한 사람의 인격체가 어렸던 인격체에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으로써 복잡 다양하고 반항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다중적인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예측하기가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자기 뜻을 이루어가시는 도구이며 관심과 주위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그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77) 김진화 외, 「청소년 문제 행동론」, 26.

78)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 「청소년복지학」, 27.

79) 김진화 외, 「청소년 문제 행동론」, 12.

(1) 신체 생리적 특징

청소년기는 제 2 차 성징(The Secondary sexual character)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신체의 전반부에 대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시기에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호르몬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몸의 외적인 형태가 전반적으로 성숙해진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증가하고 더불어 신장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된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외형의 신체적인 부분들이 두드러지며 월경현상이 시작된다.⁸⁰ 남녀 모두 공통적인 현상으로는 생식적 능력이 발달한다. 외형적 부분들이 변화되고 성숙해짐에 따라서 청소년들 개인마다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자신과 타인을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루저(Loser)라고 하는 단어는 키에 관계된 말이다. 이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민감하고 타인이나 자신을 일정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¹

이 시기에는 욕구의 발달로 인한 죄의식과 충동의 조절에 대해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수치심, 죄의식 등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성적인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급격한 변화가 이들의 생활방식 또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2) 인지적 특징

‘인지’란 지식의 유지, 획득, 활동, 구성 등을 포함하고, 추리력, 상상력, 사고, 창의력, 문제의 해결력, 범주화, 개념화와 같은 고등영역의 정신적 과정으로 정의한다.⁸²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특징은 구체적인 수행이 없다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정신적 표상이 적용되어서 사고할 수 있으며 여러 다양한 역전 가능성에 대해 협응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가능케 하게 하는 것이라고

8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자료],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 년 12 월 30 일 접속.

81) 일정 기준의 키를 넘지 않는 사람들을 속되게 말하는 것. 최근에는 여러 방면에서 빚어대 표현하고 있다.

82)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복지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5), 25.

보았다.⁸³ 이 시기에는 눈앞의 현실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상이나
가능성의 구체적인 세계, 추상적인 것에 관한 사고능력이 향상하게 되고 종합적인 사고가 한층 발달하여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고려하여 논리적,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⁸⁴

앞에서 말한 인지발달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

첫째, 자아의 정체감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동시에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자아 정체감은
전체적인 생애에서 인간이 습득해야 할 발달과업임과 동시에 청소년기의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믿음에 관한 논리를 검토하면서 믿음이 도전을 받게 된다면 다른 모든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면서 때로는 아주 심한 공격을 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명제 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면서 추상적인 것에 관한 과학적인 추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
생각 하며 상상놀이와 일기와 같은 세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과의 대화를 자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과 사고로 인해 자기 존재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되고 자신 속에 있는
잠재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적 반발이나 역할 도피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 시도하게 된다.⁸⁵

둘째로는 자기중심적이게 된다. 청소년기의 갖게 되는 자아 중심성은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자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상 청중(imaginary audience)과 그 누구도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개인적인 우화(personal fable)라는 개념으로부터 잘 발견할 수
있다.⁸⁶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은 자신을 이해 못 하며 항상 타인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되면서
유난히 유행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옷차림에 관해 신경을 쓰면서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83) Ibid., 26.

84) Ibid., 26.

85) Ibid., 27.

86)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복지론」, 23.

셋째는, 도덕성 발달이다. 청소년기의 도덕적 행동과 사고는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며 청소년들의 사회환경적인 역할의 변화와 인지적 성숙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⁸⁷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의 특성에 대해 길리건(Gilligan)의 대인 지향적인 도덕성 이론, 그리고 콜버그(Kohlberg)는 도덕성 상대주의 개념, 도덕적 퇴행 문제에 의해 설명된다. 청소년기의 반항은 청소년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행동이다. 즉, 도덕적인 퇴행적 행동의 특징을 나타내고 기존 사회가 지니고 있던 규칙이나 법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러한 규칙들과 관습들에 얽매임에 대해 벗어나기를 반복하는데 콜버그는 이것에 대해 구조적인 후퇴가 아니라 향상된 높은 단계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발달해 가기 위한 이행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타당하면서 객관적인 도덕률을 부정하고 개인적이면서 주관적 관점에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을 도덕적 상대주의라 한다. 그리고 길리건은 인간관계에서 희생, 책임, 보살핌, 애착 등에 대해 강조하는 대인 지향적 도덕성 이론을 강력히 강조하면서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자기 이익에 관한 지향보다는 타인을 책임지고 배려하려는 이타적 부분이 크게 향상함을 강조한다.⁸⁸

넷째는, 사회적인 이해력이 발달하게 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진 느낌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느낌이나 감정을 똑같이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서로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활발하게 행동하게 된다.⁸⁹

(3) 정서적 특징

사람의 마음속에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나 기분을 정서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 현격히 발달하게 되고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지나친 과업들로 인해 정서적으로 큰 불안을 지니고 살아간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정서적 특성과

87) Ibid., 23.

88)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복지론」, 24

89) Ibid., 24.

이러한 특성이 청소년들의 행동과 심리에 작용하는 영향에 대해 홍봉선, 남미애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예민하고 심한 감정의 기복이다. 사고한 일에 대해 예민해지게 되면서 쉽게 우울해지면서 깊은 낙담에 빠지게 된다. 또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화를 잘 내기도 한다. 둘째, 수줍음을 많이 타게 된다. 지나칠 정도로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행동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특히 이성 앞에서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수줍음을 숨기기 위해 생각 이상의 과장된 행동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셋째, 모방성과 호기심이 강하며 열성적이다. 어떤 일상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쉽게 흥분하며 현실성을 잃고 자주 열중해서 그 일에 깊이 빠진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귀가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외출이 잦아지며 특히 맹목적으로 우상을 추종하는 경향도 나타난다.⁹⁰⁾

위에서 설명한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특징들은 조금씩만 벗어나게 되면 옹지 못한 신앙관을 심어 주게 될 수도 있다. 공동체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4) 사회적 특성

청소년 시기에는 두 가지 사회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첫째는 사회에서 잠재적이며 긍정적인 인정을 받는 시기이고 두 번째는 이와는 반대로 책임을 지기에는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치인 미숙함에 놓여있는 시기이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하는 청소년과 자주 갈등을 갖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또래 집단에 집중하게 된다.⁹¹⁾ 홍봉선, 남미애는 청소년들이 지닌 사회적인 특징을 아래와 같이 다루고 있다.

첫째, 부모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개별화의 현상이 나타난다.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정서적인 유대를 이어가면서 자신을 부모와는 다른 특별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써 인식하고 경험해 나가는 심리적 과정을

90) Ibid., 24.

91)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 「청소년복지학」, 50.

개별화라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애착하는 대상이 부모로부터 친구에게로 바뀌게 되며 부모와는 서로 구별된 가치관을 갖거나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둘째, 또래집단(peer group)에 몰두하게 된다. 청소년 이전의 시기에서부터 또래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오지만 청소년기에 들어가서는 그 이전의 것과는 구별된 서로 간에 심리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매우 깊어지게 되고 비밀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은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 자신이 정체감을 형성하고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심리적 지지를 습득하게 한다.⁹²⁾

청소년기의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적인 특징 중에서 개별화는 필요한 요소이고 부모가 이런 현상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인지하지 않고 부모의 의지에 맞선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인 특징들로 인해 또래집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청소년기의 특징은 모든 청소년이 공통으로 겪게 되는 일이지만 같게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의 폭이 크고 개개인에게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달이 일시에, 그리고 같은 속도로 발생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⁹³⁾ 그러나 앞에서 논한 특성만으로는 청소년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기본으로 청소년 개개인에 대해 고려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현대 청소년의 문화적 이해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21 세기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현대 청소년 이해에 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현대의 청소년에 관한 이해를 통해 기독교 학교의 학원 선교의 대상이 되는 그들에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 그 특징을 알아보는 도구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는 몇 가지 문화를 사용하여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92)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복지론」, 25.

93) Ibid., 25.

1) 포스트모더니즘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post’라는 접두어와 ‘modernism’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형성된 말이 바로 ‘Postmodernism’이다. 이 용어를 의미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모더니즘에 이어 오는 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일차적인 시간적 구별을 의미할 뿐, 긍정, 부정적인 어떤 유형의 가치평가도 있을 수 없다. 이 단어는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

첫째, post-modernism(긍정적 포스트모더니즘): 이 유형은 ‘post’를 단순히 ‘후기’의 의미로만 해석하는 입장이다. 이런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단순히 모더니즘의 후기적 현상으로 해석하여, 근대사회의 일탈과 역기능의 원인은 계몽적 이성 자체의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계몽 이성의 무적절한 적용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는 하버마스(J. Habermas), 맥헤일(Brian Mchale), 피더스톤(Mike Featherstone) 등에서 발견된다.⁹⁴

둘째, post-modernism(부정적 포스트모더니즘): 이 유형은 ‘post’를 질적 차이와 단절을 가리키는 접두어로 보는 입장이다.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의 근본적 단절이요, 전적인 탈피라고 주장한다.⁹⁵ 이들은 긍정적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노력에 대해 이미 파선된 모더니즘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위장된 모더니즘이라고 비판하면서 근대사회가 이성과 과학의 힘을 빌려 주위의 모든 것들을 통제, 억압, 지배, 착취함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오늘날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모든 부정적 요소들은 계몽주의 이성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핫산(Ihab Hassan), 제임슨(Frederic Jameson), 칼리네스큐(M. Calinescu), 버진(V. Burgin) 등의 사상가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⁹⁶

세 번째, postmodernism(유기적 포스트모더니즘): 이 유형의 세 번째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사이의 관계를 단절과 연속이라는 단순 이분법적 구도로 분리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 둘의 관계에서

94) David Harvey, 「포스트모더니즘의 조건」, 구동희, 박영민 공역, (서울: 한울, 1994), 17.

95) 강정호, 장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쟁점」, (서울: 도서출판 터, 1991), 15.

96) David Harvey, 「포스트모더니즘의 조건」, 31.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 자체는 모더니즘을 벗어나서는 완성될 수 없겠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을 단순히 모더니즘의 확장과 심화로 여기게 되면 ‘post’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기보다 일종의 ‘극단적 모더니즘(ultramodernism)’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의 기본적인 단절로 보게 되면, ‘post’ 모더니즘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반모더니즘(antimodernism)’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유기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조건 없는 부정이나 긍정이라는 도식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시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기 위해 모던 적 요소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극복해서 재창조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긍정적 포스트모더니즘과 더불어 부정적 포스트모더니즘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이를 수용해내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위치한 사상가로서 바티모(G. Vattimo), 후이센(A. Huyssen), 룬타르(Jean F. Lyotard), 뉴만(M. Newman), 등을 들 수 있겠다.⁹⁷

포스트모더니즘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시대를 관통한 사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것은 서구 세계로 말미암아 세계전체로 번져가고 있으며 하나의 시대정신으로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사고방식과 관점으로 서로 작용하고 있다.⁹⁸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 신학”이라는 글에서 김영한은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 불연속성, 분열, 총체화, 탈중심화, 비결정성, 내재화 등 탈(脫)이나 비(非), 혹은 불(不)과 같은 접두사를 사용하는 용어로 그 특징을 규정한다고 말하고 있다.⁹⁹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불연속적이지만 태생적 면에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 면을 가질 수가 있다. 모더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97) 이규민, “21 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교육”, 『神學理解』 제 24 절, 200 년 12 월, 148.

98)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894), 24,

99) 김영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신학”, 『목회와 신학』, 1992 년 8 월, 81.

첫째, ‘자아에 관한 확신의 붕괴’이다. 포스트모던한 사고는 인식하고 사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문제로 생각한다. 즉 자아는 세계와 서로 대립한, 세계의 한계를 초월한 주체로서 세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확실한 인식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자아는 오히려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고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다. 지금은 데카르트적인 분명한 자아는 사라지고 여러 다양한 상황 안에서의 다양한 자아들이 존재할 뿐이다.¹⁰⁰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이렇게 자아에 관한 근거를 무너지게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근시대의 모든 신념, 즉 합리적 이성에 의해 형성된 가치의 보편성,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철저하게 붕괴시켰다.

둘째, ‘웅대한 이야기의 거절’이다. 모더니즘은 모든 삶을 판단하고 뒷받침해 주는 보편성을 담지한 거대담론을 당연히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리오타르(Lyotard)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본 성격을 한마디로 거대담론의 퇴화(obsolescence), 메타이야기에 대한 불신(incredulity)이란 말로 규정했다. 따라서 오늘의 세계는 신화를 거부하는 세계, 웅대한 이야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가 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표준으로 여겨지는 갖가지 주장, 가치가 사실은 지식과 힘의 행사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해 온 계층이나 집단의 관점이었음을 자각하게 하였다. 웅대한 이야기의 거절은 서양, 백인, 남성, 기독교의 관점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운동, 동성연애자들의 투쟁, 종교 다원주의, 뉴 에이지 운동, 환경 운동, 포스트 식민주의 등은 직접, 간접으로 웅대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¹⁰¹

셋째, 과학 일방성에 대한 거부이다. 모던 과학은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신뢰를 바쳤던 비과학적 이야기, 신화, 신념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에서부터 등장하였다. 과학적인 방법은 전근대적인 지식의 정당성을 타파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다. 리오타르에 의하면 “과학의 진보”를 정당화함에 있어 두 가지 이야기가 기여하였다. 이 두 이야기는 철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는데 전자에 따르면 그동안 폭군이나 사제들에 의하여 과학적인 지식에로의 접근을 차단당함으로써 무지함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해 왔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 과학적

100)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77-8.

101) 이문균, 81-2.

지식을 가질 권리가 있고, 과학을 통하여 그 압제와 무지의 개념에 대해 공격함으로써 품위와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후자는 인간보다는 지식 그 자체에 대해 초점을 조준하고 있다. 즉 과학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가 지식의 확대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정당화되는 것이 마땅하고, 과학의 여러 분야가 지식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과학은 옳고 선하다는 것이다.¹⁰²

이 두 이야기를 제외한 다른 주변 이야기들은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지향하는 관점에 의해 조직되고 정돈되어서 과학의 진보라고 말하는 거대담론에 하나가 되고 그 이야기를 따라야만 그의 의미를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과학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담론의 신뢰는 잃어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 지식의 탐구에 대해 참여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즉, 그들은 진리를 찾는 것에 대해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연구수행 그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를 지원하는 단체나 재정후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일차적인 목적은 인류의 해방이나 지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한 힘을 확대하려는데 있다. 이제 사람들은 진리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진리가 어떤 것에 유용한가를 문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⁰³

넷째, 진리에 대한 부정이다. 진리 그 자체에 관한 부정이 아니라 진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 느끼는 회의이다. 이것은 앞에서 정리했던 네 가지의 포스트모던적인 관점을 요약한 것과 같다. 즉 포스트모던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자아에 관한 확신, 객관적 세계상에 대한 확신, 또한 진리를 잘 표현하는 언어 능력에 대한 확신 등에 대해 근본적 비판을 통해 진리의 객관성, 객관적 표현 가능성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주의할 점은 ‘진리’ 그 자체에 대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실체는 인정하지만, 그 실재를 파악해가는 인간이 소유한 이성적 능력에는 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⁰⁴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에 대해 극단적으로 거부하지만, 전통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전통에 관해서는 초월적 영원한 의미에 대해 추구하지 않고 텍스트화된 유산을

102)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31-6.

103) Ibid., 84-5.

104)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83.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전통에 대해 재평가하고 대화하고자 한다. 즉, 한편으로는 전통에 대해 극단적 단절을 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의 관점에서 전통을 재평가함으로써 이것을 현대화시키고자 하는 역설적인 구조, 모순성이나 혼합성 그 자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혼합성, 모순성 그 자체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다.¹⁰⁵

2) 감성주의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보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원한다. 간접적인 설명 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지향한다. 논리적인 이성애 의해 머리가 따라가는 것보다 비논리적인 감성을 통해 마음이 옮겨가는 것을 원한다. 현대의 청소년들이 소유하게 되는 감성주의는 이성의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이동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됨으로 인해 사람들의 사고에 관해서도 결과를 속히 도출해 내게 되었다. 급속히 변모해 가는 사회 속에서 심각한 이성적 고민 후에 결과를 내는 것은 사회적 도태를 나타내며, 또한 조직 사회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다만 어떤 것이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는 최대한 빨리 판단해서 행동에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바로 영상매체가 이런 재빠른 판단을 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영상매체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약 15 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아! 저것을 정말 갖고 싶다’라는 자극을 심어주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의 가진 감성을 자극한다. 파괴적인 것이나 선정적인 아주 같은 강렬한 충동으로 인해 인간의 잠재의식에 이미지를 남겨, 사람에게 직접 반응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들이 몇 년 동안 지속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오직 감성적 판단만이 청소년 시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으로 점점 더 자리잡는다.

이러한 감성적 판단의 원인은 시시각각 변하는 청소년들의 기분과 감정때문이다. 개인주의의 정도가 지나쳐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사회적인 풍토가 학교환경으로 유입되면서 학급에서 소위 ‘짱’인 학생의 기분과 감정이 그가 속한 학급의 법이며 규칙이 되었다. ‘짱’인 아이의 말을 듣지 않거나 기분을

105) Ibid., 82.

상하게 하여 버리면 왕따라는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 폭행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걱정거리와 근심이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기분과 감성에 의한 청소년들의 감성적 판단이 한층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버려, 청소년들은 점점 더 폭력적이 되고 선정성이 매우 강한 온라인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음란한 영상 혹은 선정적인 잡지, 음주, 심지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에까지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주의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바로 선한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정도의 한계를 지나치게 뛰어넘어 버려, 제어가 되지 않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감정이 청소년들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청소년 각자가 접하는 마는 자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또래 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자극에 노출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청소년의 비행(非行)을 낳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3) 상대주의

현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인 특징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를 뛰어 넘는 이기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자극적인 감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에 쾌락과 기쁨, 그리고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말하는 것은 현 시대 청소년들은 매우 다양한 각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성과 개성을 기본으로 한 경험적인 삶에 대해 존경심을 갖는다. 이것은 대중문화에 익숙해져 그것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연예인들과 신선하고 새로운 문화를 모방하면서 나타나는 최근에는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건으로 청소년들 개성의 너무 많은 부분을 인정한 나머지, 학교 안에서의 소수 성애자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극적인 감성주의와 이기주의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이런 다양성과 개성이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 속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리고 말았다.

이런 상대주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기성세대가 비판하는 모든 것을 비판한다. 자신들의 개성적 삶에 대해 기성세대가 기존 세계관의 관점을 통하여 비판하려고 할 때, 그런 전형적 계몽주의의 오만으로 인지하며 기성세대 즉, 교사와 부모와의 대화에 대해 그것을 단절하고 무시해 버린다. 상대주의로부터 발생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모호함이다.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은 남성으로 뒤바뀐다거나 서로 간의 영혼이 바뀌는 등이 소재가 되는 드라마가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은 사고방식에서 패션에 이르는 전 부분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모호하게 변해가는 등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형성에 관해서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4)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이 시대의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점점 더 핵가족화되면서 혼자서 양육되거나 혹은 한 명의 형제와 더불어 성장해 온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이것마저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 기금)¹⁰⁶이후 맞벌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었고, 형제없이 혼자 성장한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홀로 생활하는 것에는 익숙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함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만의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2000 년대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인터넷과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룬다.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의 소지가 대중화되어 있는 현대의 청소년들에게는 타인이 없는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혼자서 사회와 대화하는 방법을 습득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게임중독에 빠지는 위험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은 인격적 상호교감 속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아니라 주관적 개인적 선택만이 있는 일방적인 소통이다.

사회와 가정의 변화로 인한 이 시대의 개인주의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능력까지 변화시켜 버렸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현대의 청소년들은 건전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려고

106) 다음 영어사전, [온라인 자료], <http://dic.daum.net/search.do?q=imf>, 2016 년 12 월 31 일 접속.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오직 자신만의 행복이 중요하고 영웅적인 우월감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며 몰인격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인간 존재가 된다.

5) 소비주의

소비주의 문화는 현대의 청소년들에게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적 특성이다.

소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해 온 청소년들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 그 배경에는 성(性), 종교, 교육, 사상 등 상품화할 수 없는 것도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주의 심리가 청소년들에게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에 더 익숙해진 감성적인 판단에 능한 청소년들이 영상매체 즉 TV 나 영화, 광고 속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행동과 외모 등을 따라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게 되는 도구를 얻게 되었다. 즉, 오늘날 청소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소비주의 문화는 그들에 의해 창조된 문화가 아닌, 기성세대의 문화 상업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를 소비자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방하는 것뿐이다.¹⁰⁷ 이런 소비주의 문화가 빚어내는 현상은 자신들의 소비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매매를 위한 가출 등 여러 가지 비행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현대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포스트모던, 감성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로 살펴보았다. 한편 이런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성희는 [미래사회와 미래교회]에서 PANTS 신드롬이라 언급하였는데 개인적(personal), 흥미본위(amusement), 자연스러움(natural), 모호함(transborder), 자기 사랑(selfloving)이 그것이다.¹⁰⁸

107) 권이종, 「청소년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6), 315-7.

108)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학기독교서회, 1997), 93-6.

3. 선교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이제까지 청소년에 관한 문헌적인 연구로써 현대 청소년들의 정의와 일반적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시에, 이 시대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특성들을 함께 설명했다. 그런데 이들의 특성과 발달이 표현되고 있는 대부분이 장소가 다름 아닌 바로 학교라는 사실이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이다. 하루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가슴으로는 느끼는 곳이 학교이다. 현대의 일반적인 청소년들 특별히 중학생과 비교하면 고등학생들은 오전 8 시에 학교에 가서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오후 10 시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경우 혹은 학원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심, 저녁 식사 두 끼를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거나 학원으로 가는 중에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결국 집에서는 6 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만 잠을 잘수 있고 부모와 대화하기보다는 친구나 학교 선생님들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제 2의 집이다. 때로는 교사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하며, 친구들은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와 같은 조력자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제 2의 가정이라 불리는 학교에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경주한다. 그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문화시민으로서 참사람다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여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행태들은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과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비관해 자살을 선택한다. 또한 소비와 감성에 취해있는 청소년들은 같은 또래들에 의한 집단적 폭행과 동거에 의한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실정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대부분의 청소년 비행들이 기성세대가 즐기고 있는 문화로부터 파생된 부정적인 문화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제 2의 가정이 되어야 하지만 ‘학교다움’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전인적 총체적인 교육은 버리고 기성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 장소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진 기독교 청소년들도 자신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 나가기란 절대 쉽지 않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안에서, 자신의 또래 집단 속에서 이탈되거나 뒤처지기를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자신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숨겨버리고 마는 비기독교인과 같이 행동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을 저버리고 비행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고 만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예 처음부터 비기독교인 학생들과 아무 관계도 없이 학교생활을 마쳐야만 한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자신의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 버리는 현상이 지속할 경우, 한국교회의 장래는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의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지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전수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미 교회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현대의 교회가 청소년들의 특성인 소비주의, 감성주의, 개성주의 세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방식대로 성경을 문자적, 지식적으로만 전하여 기능적인 신앙인을 양육하려는 시도에 청소년들은 자신들과는 맞지 않는 이러한 방식들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믿음의 세대가 계속될수록,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더불어 불신 청소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 2의 가정으로서의 학교 선교는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교목이 상주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계 중고등학교의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학교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생들과 접촉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앙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제 2의 가정의 역할을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앙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신앙훈련기회인 경건의 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4 장

동방고등학교 경건의 시간 실시 현황

1. 동방고등학교의 경건의 시간

동방고등학교는 필자가 약 2 년 동안 본 연구자가 재직한 학교이다. 2014 년도 전반기, 2015 년~2016 년 4 월까지 교목으로 근무했다. 교목으로 재직할 때 2014 년도 후반기에 잠시 혜천대학교(現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목으로 재직 중에 있었는데,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오가면서 고등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에 대해 관심을 끌게 되었고 고등학교에서 경건의 시간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실행하였다. 동방고등학교의 경건의 시간에 대한 현황은 하나의 실례로 기독교 학교에서 경건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려 한다.

1) 동방고등학교의 건학 이념과 교육 이념

모든 학교는 각자 학교마다 가진 건학 이념들이 있다. 건학 이념은 학교 설립자의 생각과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이 목표와 본질, 국가 사회와의 관계, 학교 운영의 기본방향을 잡아주는 원리적인 생각이다.¹⁰⁹ 건학 이념은 학교의 모든 것을 보여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기독교 학교는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적 인성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크고 기독교적 인사를 키움으로써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학생을 길러내고 싶을 것이다. 기독교적 사고관과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냄으로써 국가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동방고등학교의 건학 이념은 ‘경천(敬天), 위국(爲國), 애인(愛人)’으로서 하늘을 공경하고 나라를 위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기독교적 정신을 근본으로 두고 있다. 이에 본 고등학교는 ‘바른 인성과

109) 네이버 교육학용어사전, [온라인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09818&cid=42126&categoryId=42126>, 2016 년 12 월 23 일 접속.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육성'하는 교육이념을 기초로 두고 있으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애국인),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사람(창조인), 심신이 건전하고 정서가 순화된 사람(건강인), 예의가 바르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도덕인), 근면 성실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자주인)을 목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知) 덕(德) 체(體)를 고루 갖추어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¹¹⁰⁾

이를 바탕으로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예절지도,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업을 통해 학력을 신장시키며, 기초 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고 인성교육을 통한 균형적인 인간을 육성하며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한 예절을 지도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독서력을 함양시키고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세우고 있다.

본 고등학교는 위 건학이념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 인성교육부와 교목실과 함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예배와 교육, 봉사와 섬김, 선교와 비전 등 활동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 가치관 형성 교육 활동 세부 추진 계획¹¹¹⁾

교육 활동 영역	교 육 목 표
예배와 교육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감사를 배우고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며, 삶으로서의 예배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성경 수업을 통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관한 가치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더불어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기독교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형성하게 한다.
봉사와 섬김	남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하는 생활을 통해 청지기 정신을 함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경험하고, 창조 질서와 생명 존중의 의미를 배워 정의와 평화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전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
선교와 비전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당에 실현하기 위해 세계를 향해 원대한 삶의 비전을 갖도록 한다.

110) 동방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 2016, 30.

111) Ibid., 144.

위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본 고등학교는 여러 일을 하고 있다. 매일 조회 시간 전에 은혜로운 음악, 오늘의 말씀, 학생들을 위한 기도의 순서로 경건의 시간이 있다. 음악은 매일 방송을 통해 전체 교실에서 영상과 함께 부르고, 잘 모르는 학생들은 듣기만 한다. 각 요일마다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은 교목이 방송을 통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학생들의 인성과 학교생활 및 학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화요일은 교목이 준비한 오늘의 말씀을 각 반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같이 읽고 담임교사가 학급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형태이다. 나머지 요일은, 교목이 준비한 오늘의 말씀을 각 반 선교 반장과 차장이 번갈아 가면서 친구들과 같이 읽고 학급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태이다. 이 외에 선교부 활동도 있는데 매주 목요일 찬양, 성경공부, 교제, 선교 활동 방안을 토의한다. 교목, 담당교사가 주관하며 늘푸름제¹¹² 행사 시 바자회를 개최한다. 또한, 1년에 2회 신앙 수련회를 개최하여 신앙들 바로 잡고 사랑의 저금통, 사랑의 빵을 통한 이웃 돕기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대적으로 학생 채플을 드리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전체 학생들이 다목적 강당에 모여 채플을 실시한다. 1 학기에는 2 학년이, 2 학기에는 1 학년이 반별로 돌아가면서 각 반 선교 반장이 인도하고 선교 차장이 기도하며, 자율적으로 지휘자와 반주자를 선정하여 특송을 하며 자기 반 차례가 돌아오면 점심시간과 예체능 시간을 이용하여 연습한다. 준비 찬양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찬양 연주반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준비한 찬양을 채플이 시작되고 10분 정도 무대에서 연주하며 찬양을 드린다. 말씀은 교목이 준비하며 시험 기간에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생들을 독려하기도 한다. 채플 시간에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 한 학기에 한 번씩 희망자에 한하여 전체 채플 때 실시하고 있다.¹¹³

이를 통해서 해당 고등학교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창조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꿈을 꾸는 인재를 양성하며 학생들의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소유한 인재를 양성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진솔한 인간이 되게 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개인주의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인재를 양성하고 아름다운

112) 동방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연례 행사.

113) Ibid., 144-7.

음악과 합창으로 공동체의 협력하는 활동을 통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상담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교육하기를 기대하고 있다.¹¹⁴

현재 건학 이념과 교육 이념은 위와 같지만, 대전시 내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평준화가 되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자율성 없이 배정을 받고 있어서 종교적으로 다가가기 쉽지가 않다.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경공부, 예배활동 등에 참여해야만 하므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은 기독교적 활동을 불편해한다.

(1) 2016년도 전체 학생 교육과정 편성표

<표 4> 2016 년도 동방고등학교 1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¹¹⁵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초	국어	국어 I (4) 국어 II (4)
	수학	수학 I (5) 수학 II (5)
	영어	실용 영어 I (5) 실용 영어 II (5)
탐구	사회	사회(5) 세계사(3) 생활과 윤리(3)
	과학	생명과과학 I (4) 지구과학 I (4)
체육 예술 생활 교양	체육	운동과 건강생활(4)
	예술	음악과 생활(2) 미술문화(2)
	기술/ 가정	기술/가정(4)
	교양	종교학/철학(2)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2)
		동아리 활동(4)
		봉사활동(2)
		진로활동(2)

114) Ibid., 147.

115) Ibid., 53-4..

1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 1 년 동안 총 편성된 70 시간 중 종교에 할애된 시간은 총 4 시간인데 그 중 자율활동에 편성된 2 시간은 말 그대로 자율활동으로써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기독교와 관련된 직책이 있거나 기독교적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생들은 비종교적 활동을 참여한다.

<표 5> 2016 년도 동방고등학교 2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¹¹⁶

교과 영역	교과 (군)	과목		
		인문과정	자연과정	과학집중
기초	국어	독서와 문법(6) 문학(6)	독서와 문법(4) 문학(4)	독서와 문법(4) 문학(4)
	수학	확률과 통계(4) 미적분 I (4)	확률과 통계(2) 미적분 I (5) 미적분 II(5)	확률과 통계(2) 미적분 I (5) 미적분 II(5)
	영어	영어 I (5) 실용영어독해와 작문(5)	영어 I (4) 실용영어독해와 작문(4)	영어 I (4) 실용영어독해와 작문(4)
탐구	사회	한국사(6)	한국사(6)	한국사(6)
	과학	물리 I (2) 화학 I (1)	물리 I (4) 화학 I (4) 생명과학 II(4) 과학실험(1)	물리 I (4) 화학 I (4) 생명과학 II(4) 과학실험(1)
체육 예술 생활 교양	체육	스포츠문화(4)	스포츠문화(4)	스포츠문화(4)
	예술	음악과 생활(4)	음악과 생활(4)	음악과 생활(4)
	제2외국	일, 중, 독 I (6)	일, 중, 독 I (6)	일, 중, 독 I (6)
	교양	한문 I (4) 논술(2)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2)	자율활동(2)	자율활동(2)
		동아리 활동(4)	동아리 활동(4)	동아리 활동(4)
		봉사활동(2)	봉사활동(2)	봉사활동(2)
		진로활동(2)	진로활동(2)	진로활동(2)

116) Ibid., 53-4.

<표 6> 2016 년도 동방고등학교 3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¹¹⁷

교과 영역	교과 (군)	과목		
		인문과정	자연과정	과학집중
기초	국어	화법과 작문(6) 고전(6)	화법과 작문(8)	화법과 작문(8)
	수학	확률과 통계(4) 미적분 I (4)	확률과 통계(4) 미적분 I (3) 미적분 II (3) 기하와 벡터(4)	확률과 통계(4) 미적분 I (3) 미적분 II (3) 기하와 벡터(4)
	영어	영어 II (6) 영어독해와 작문(6)	영어 II (6) 실용영어독해와 작문(6)	영어 II (6) 실용영어독해와 작문(6)
탐구	사회	사회문화(6) 한국지리(8)	경제(4)	
	과학		물리 II (6) 화학 II (6) 화학실험(2) 선택실험(2)	물리 II (6) 화학 II (6) 화학실험(2) 선택실험(2)
체육 예술 생활 교양	체육	스포츠문화(2)	스포츠문화(2)	스포츠문화(2)
	예술	음악과 생활(1) 미술문화(1)	음악과 생활(1) 미술문화(1)	음악과 생활(1) 미술문화(1)
	제2외국	일, 중, 독 II (4)	일, 중, 독 II (4)	
	교양	환경과 녹색성장(2)	환경과 녹색성장(2)	환경과 녹색성장(2)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2)	자율활동(2)	자율활동(2)
		동아리 활동(2)	동아리 활동(2)	동아리 활동(2)
		봉사활동(2)	봉사활동(2)	봉사활동(2)
		진로활동(2)	진로활동(2)	진로활동(2)

위의 <표 4>와 <표 5>, <표 6>를 대조해 봤을 때, 1 학년들만 따로 종교수업이 들어가 있고 2, 3 학년부터는 공교육 중심적 교과과정이 구성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 학년에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들어가 있지만, 위 활동들은 종교적으로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어서 채플과 오전 경건의 시간을 제외하면 따로 기독교 학교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많지 않다.

117) Ibid., 53-4.

<표 7> 일과 운영시간표¹¹⁸⁾

교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등교	~ 08:00	등교시간					
조 회							
1	08:20~09:10						
2	09:20~10:10						
3	10:20~11:10						
4	11:20~12:10						
점심	12:10~13:00	점 심 시 간					
5	13:00~13:50			창체 동아리			
6	14:00~14:50			창체 동아리			
7	15:00~15:50			창체 동아리	창체 자율		
청소 및 종례							
8	16:10~17:00			창체 봉사	채플		
9	17:10~18:00						
저 녁 시 간							

<표 7>에서 조회시간을 활용해 본 고등학교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2) 종교학 교육

본 고등학교 종교학 시간에는 「종교와 생활Ⅱ」(기독교 학교연맹-고등, 2015)을 사용해서 수업한다. 해당 책은 종교에 대해 폭넓고 균형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삶의 태도를 기르고자 출간된 책이다. 또한, 종교적 가름, 의례 종교 공동체와 관련된

118) Ibid., 56.

다양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종교들의 특성을 서로 비교, 대조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며,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인간관과 자연관을 기르며 한국의 고유 종교와 외래 종교의 전개 및 상호 작용과 이들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종교 공동체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¹¹⁹⁾ 1 학년은 해당 책의 상권을 배우는데 상권은 <표 8>과 같다.

<표 8> 종교와 생활Ⅱ 단원 구성¹²⁰⁾

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제목	기독교 학교	인간과 종교	인간과 자연	세계의 종교와 문화	기독교 사상과 전통(1)
내용	I 기독교 학교의 시작 II 기독교 학교의 종교 교육활동 III 교회와 기독교 절기	I 종교의 의미 II 종교적 믿음 III 종교의 목적	I 인간에 대한 이해 II 자연에 대한 이해 III 과학과 종교에 대한 이해	I 불교 II 이슬람교 III 유대교 IV 힌두교	I 예수와 기독교 II 기독교의 경전과 사상 III 예수의 복음 IV 기독교의 복음전파

구성을 보았을 때는 크게 기독교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위 목표에서 밝혔듯이 종교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을 기독교에 적용함으로써 기독교를 왜 믿어야 하며 기독교가 믿는 신이 왜 진리이고 참된 신인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시키는 좋은 수단이 된다. 무작정 학생들에게 성경을 들이밀면서 읽히게 하고 보게 하면서 참된 진리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논리적으로 신빙성 있게 접근하는 하나의 수업인 것이다.

119) 백영철 외, 「종교와 생활Ⅱ」,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3.

120) Ibid., 4-5.

2) 채플과 경건의 시간

기독교 학교에서는 우선으로 학생들을 경건의 훈련에 참여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이유 중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는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훈련해 사회에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을 경건의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본 고등학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1) 채플의 의미

채플(Chapel)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차적인 의미는 ‘큰 교회나, 학교, 병원 개인 저택 내에 부속된 예배당이나 영국 비국교도의 교회당을 일컫는다.’ 고 되어있다.¹²¹ 두 번째 의미에 본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대학 등에서 실시되는 예배나 예배의 출석을 말한다. 즉,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학생들의 경건을 위해 의무적으로 드리게 하는 예배를 가리킨다. 기존의 공예배 형태와 찬양 예배의 형태가 섞여 있다.’ 고 되어있다.¹²²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채플은 예배당이나 교회를 말하는 것보다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바가 크다. 채플은 기독교 학교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고등학교는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대학교는 강제성이 있어서 채플을 드리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경건의 시간 대신 학생들의 경건을 위해서 채플을 의무적으로 드리게 한다.

여기서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학생들의 경건을 위해 의무적으로 드리게 한다.” 고 되어있다. 경건의 시간 의미는 학생들에게 경건을 훈련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채플에 이미 그 경건을 훈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채플이다. 채플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준다. 본 학교의 이념도 기독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121) 네이버 교회용어사전 : 예배 및 예식, [온라인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79292&cid=50762&categoryId=51368>, 2016 년 12 월 23 일 접속.

122) 네이버 교회용어사전 : 예배 및 예식, [온라인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79292&cid=50762&categoryId=51368>, 2016 년 12 월 23 일 접속.

따라서 본 학교도 마찬가지로 채플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채플을 드림으로써 경건을 훈련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 건학 이념과 교육 목적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표 9> 동방고등학교 채플 순서 현황

시간	순서	내용
4:00~4:10	찬양	동방고등학교 선교찬양단 (악기 팀, 워십 팀)
4:10~4:13	신앙고백	사도신경
4:13~4:18	찬송가	다 같이
4:18~4:23	대표기도	각반 선교부장
4:23~4:28	특송	담당학반
4:28~4:48	설교	교목
4:48~4:50	광고 및 축도	교목

현재 동방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약 1,000 여 명으로 원하는 학생들은 채플에 참여할 수 있다. 타 종교나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는 열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주 한 번 목요일 8 교시 즉 오후 4 시에서 4 시 50 분까지 진행되는 채플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본 학교는 채플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찬양 선교단 동아리를 두어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채플로 유도하고 있으며, 특송 시간을 두어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문화적인 면을 통해서 채플로 이끌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채플에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1,000 명이라는 학생 수와 비교하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인원은 상당히 적지만, 모든 것을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제공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채플의 내용

채플은 예배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에 속한 일반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구성요소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찬양, 신앙고백, 찬송, 대표기도, 특송, 설교, 광고 및 축도로 구성 된다. 하지만 소수의 기독교인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불신학생이므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현금이나 헌물은 제외되어 있다. 채플의 인도는 각반의 선교부장이 미리 준비한 큐씨트로 진행하게 된다. 채플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찬양

채플을 드리는 시각이 되면 약 10 분간의 찬양이 시작된다.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동방고등학교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찬양팀이다. 이 팀은 음향팀 8 명, 워십댄스팀 18 명, 싱어 11 명, 그리고 악기 팀 11 명 등 총 48 명으로 1, 2 학년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점심시간을 이용해 찬양시간을 위해 연습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도 1 명 배치되어 있다. 채플 중 찬양할 때는 스크린을 이용해 자막을 보여 줌으로 전교생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찬양곡은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불신학생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같은 곡을 자주 반복함으로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불신학생들도 졸업할 때쯤이면 많은 찬양곡을 알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곡은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부르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나 복음송을 사용한다.

ii) 신앙고백

찬양이 끝남과 동시에 사회자의 인도로 신앙고백이 시작된다. 신앙고백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불신학생이 많아 암송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스크린에 자막으로 띄워주며 학생들은 이것을 보고 따라 읽는다. 약 1,000 여 명의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이다.

iii) 찬송

이 시간에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부르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 수록된 곡들로 찬양한다. 많은 수의 곡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곡을 바꾸어 찬양한다. 찬양연주 반(드럼, 키보드, 전자기타 등)이 반주를 하지 않고 피아노 반주로 찬양한다.

iv) 대표기도

재학생 중 각반의 선교 차장이 순서를 맡는다. 기도문을 미리 작성하여 교목에게 확인과 지도를 받고 난 이후에 대표기도를 하게 된다.

v) 특송

매주 한 반씩 돌아가며 순서를 맡는다. 음악적 능력을 갖춘 학생이 지휘를 맡으며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특송 연습을 한다. 이 시간에는 악기와 율동, 랩 등 신세대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고 찬양을 통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 특송을 하는 학생들을 향한 나머지 학생들의 호응도 대단히 좋다.

vi) 설교

약 20 분간의 설교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에는 교목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게 되는데 본문의 내용을 기독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불신자인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를 이용한다. 주로 PPT(PowerPoint)나 영상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상에는 영화를 편집해서 사용하거나 학생들에게 관심을 뒀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특별한 경우 강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등 긍정적인 선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vii) 광고 및 축도

교목이 진행하며 재학생들에게 학교의 중요 사항들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함으로 채플을 마치게 된다.

3) 동방고등학교의 경건의 시간 내용

동방고등학교 경건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회 시간에 진행된다. 시간은 약 10 분 동안 방송으로 진행된다. 월요일은 교목이 진행하며 화요일은 담임교사, 수, 목, 금은 각반 선교부장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방고등학교 경건의 시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찬양

찬양은 한 달 동안 같은 곡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약 90%는 찬송가를 접해보지 못한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같은 곡을 반복하여 매일 진행함으로 찬송가가 익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입으로 흥얼거리는 정도는 된다. 특별한 경우 각반의 선교부장들은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찬양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부흥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2) 성경 말씀

경건의 시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시간은 교목이 1 개월 치의 말씀을 요일별로 정리해서 각반의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한다. 전달받은 담임선생님은 선교부장과 함께 학생들에게 본문 말씀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적 가치관, 그리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각반의 칠판에 오늘의 성경 말씀을 판서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0> 현 동방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경건의 시간 계획

오늘의 말씀(4 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주	일	요일	본문(잠언)	성 경 말 씀
1 주	1	금	15: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5	화	15:4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2주	6	수	15:13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7	목	15:17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8	금	15:2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3 주	12	화	15:27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14	목	16: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15	금	16: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4주	19	화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20	수	16:16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21	목	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22	금	17: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5 주	26	화	17:12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퇘지를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27	수	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8	목	17:25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9	금	17:28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3) 기도

각반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담임교사가 각자의 방법대로 진행하는데 교사 자신이 기도하는 경우, 그리고 선교부장이 하는 경우, 또는 각 반의 신앙이 좋은 학생을 선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 시간을 통하여 담임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4) 경건의 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동방고등학교 경건의 시간에 대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앞에서 정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운영방법으로는 기독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는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건의 시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경건의 시간 진행 방법

현재 경건의 시간이 진행되는 방법은 오전 8 시에 오프닝 음악이 방송으로 나간 이후에 찬송가 한 장, 그리고 성경 봉독과 함께 말씀 묵상, 기도 순으로 진행된다. 거의 대부분 반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 방법이 일반 교과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식 전달 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직관계, 즉 딱딱한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건의 시간은 틀에 박힌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 각 반의 교사와 선교부장의

인도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여 편안함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경건의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 방법

월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은 교목이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 즉, 영상, 음악, PPT (power point) 등의 방법으로 설교하고 있다. 그리고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즉 나흘 동안은 교사나 각 반의 선교부장을 통해 진행된다. 앞의 경우는 교목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지만, 교사나 선교부장이 진행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교목은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교사나 선교부장을 통해 미리 제공하므로 경건의 시간의 말씀 묵상을 돕도록 해야 한다.

(3) 경건의 시간 효율적 운영을 위한 리더 훈련

경건의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반의 선교부장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중 2~3회는 각반의 선교부장이 경건의 시간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동방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교부장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중 1회 1시간 부여하고 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교목의 지도하에 리더십, 교수 방법, 시청각 자료 활용방법, 말씀 묵상 방법 등을 선교부장들에게 교육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경건의 시간 운영과 이를 통한 전도가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안에서의 경건의 시간 운영은 기독교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수직관계의 지식전달만을 위한 방식이 아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율적인 방법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말씀 묵상 방법,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진행하는 리더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학원 선교와 기독교 인성함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에 관한 설문자료 분석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동방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학년과 2 학년 9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지를 동방고등학교 1, 2 학년 학생 104 명에게 배부하여, 104 부 모두가 회수되어 100% 회수율을 나타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이 부실한 응답지 8 부를 제외하고 총 96 부의 설문지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1 과 같다.

<표 1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변인	분류	빈도(N)	백분율(%)
학년	1학년	62	64.6
	2학년	34	35.4
성별	남	48	50.0
	여	48	50.0
종교	기독교	52	54.2
	천주교	2	2.1
	불교	8	8.3
	무종교	33	34.4
	무응답	1	1.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경건의 시간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이다. 작성된 설문지는 동방고등학교 1, 2 학년 학생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15 문항으로 구성내용은 크게 일반적 배경, 경건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 표 2 와 같다.

<표 12> 설문지의 문항 구성

구분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일반적 배경	성별	1	1
	학년	2	1
	종교	3	1
경건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경건의 시간의 형식	8	1
	경건의 시간의 진행시간	9	1
	이상적인 경건의 시간 실시 횟수	13	1
	경건의 시간에 임하는 태도	15	1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경건의 시간에 대한 유익과 불만족 이유	7	1
	경건의 시간에 대한 흥미	12	1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한 인식	학교 분위기	4	1
	기독교 학교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부분	5	1
	신앙생활의 변화	6	1
	기독교 이해하는 데 도움	10	1
	전도하는데 효과	11	1
	인격형성에 도움	14	1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경건의 시간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연구
도구의 적절성과 문제점, 응답의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6 년 7 월 1 일부터 2016 년 7 월

31 일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5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 분가량임을 알 수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조사된 내용은 수정하고 보충할 문항을 보완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16 년 9 월 1 일부터 2016 년 9 월 31 일까지 실시하였다. 동방고등학교와 연락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고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는 글과 설문지를 동봉하여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전달된 설문지는 수업시간을 통해 연구 대상자에게 배부 · 회수하였다. 배부된 104 부의 설문지 중에 무응답이 있거나 불성실 응답자 설문지를 제외한 96 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교차분석을 시행해 카이스퀘어검증(χ^2)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1) 경건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1)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형식에 대한 인식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형식에 대한 인식 결과는 다음 표 3 과 같다.

<표 13>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형식에 대한 인식

(N=96)

경건의 시간에 대한 형식		지금까지 실시해온 방법이 가장 좋다	비교적 좋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전체	$\chi^2(p)$
학년	1학년	6	26	18	10	2	62	5.164 (.271)
		9.7%	41.9%	29.0%	16.1%	3.2%	100.0%	
	2학년	7	14	5	5	3	34	
		20.6%	41.2%	14.7%	14.7%	8.8%	100.0%	
성별	남	7	17	13	8	3	48	1.635 (.803)
		14.6%	35.4%	27.1%	16.7%	6.3%	100.0%	
	여	6	23	10	7	2	48	
		12.5%	47.9%	20.8%	14.6%	4.2%	100.0%	
종교	기독교	9	24	6	11	2	52	28.737* (.026)
		17.3%	46.2%	11.5%	21.2%	3.8%	100.0%	
	천주교	1	1	0	0	0	2	
		50.0%	50.0%	.0%	.0%	.0%	100.0%	
	불교	0	3	1	2	2	8	
		.0%	37.5%	12.5%	25.0%	25.0%	100.0%	
	무종교	3	12	15	2	1	33	
		9.1%	36.4%	45.5%	6.1%	3.0%	100.0%	
기타		0	0	1	0	0	1	
		.0%	.0%	100.0%	.0%	.0%	100.0%	
	전체	13	40	23	15	5	96	
		13.5	41.7	24.0	15.6	5.2	100.0	

* $p < .05$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형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교적 좋은 편이다’가 41.7%(40명)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가 24%(23명),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가 15.6%(15명),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방법이 가장 좋다’가 13.5%(13명),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가 5.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건의 시간의 형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가 41.9%, ‘그저 그렇다’가 29.0%로 나타났고, 2학년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가 41.2%,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방법이 가장 좋다’가 20.6%로 나타나 2 학년이 1 학년보다 경건의 시간 형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가 35.4%, 여학생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가 47.9%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형식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기독교는 46.2%, 천주교는 50.0%, 불교는 37.5%, 무종교는 36.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8.737, p<.05$)

(2) 경건의 시간의 형식 개선 방안

경건의 시간의 형식 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 와 같다. 표 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건의 시간의 형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인식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형식을 자유롭게’가 14.6%(14 명), ‘영상 중심으로’가 12.5%(12 명), ‘찬양 시간을 길게’가 9.4%(9 명), ‘성경 말씀 중심으로’가 5.2%(5 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4> 경건의 시간의 형식 개선 방안

(N=40)

내용	빈도(N)	백분율(%)
성경 말씀 중심으로	5	5.2
영상 중심으로	12	12.5
찬양시간을 길게	9	9.4
형식을 자유롭게	14	14.6
합계	40	41.7

(3)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이상적인 진행시간에 대한 인식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이상적인 진행시간에 대한 인식 결과는 다음 표 5 와 같다.

<표 15>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이상적인 진행시간에 대한 인식

(N=96)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상적인 진행시간		5분 이하	6분~10분	11분~15분	16분~20분	전체	$\chi^2(p)$
학년	1학년	23	36	0	3	62	8.960* (.030)
		37.1%	58.1%	.0%	4.8%	100.0%	
	2학년	15	14	4	1	34	
		44.1%	41.2%	11.8%	2.9%	100.0%	
성별	남	17	26	2	3	48	1.501 (.682)
		35.4%	54.2%	4.2%	6.3%	100.0%	
	여	21	24	2	1	48	
		43.8%	50.0%	4.2%	2.1%	100.0%	
종교	기독교	13	33	4	2	52	15.166 (.233)
		25.0%	63.5%	7.7%	3.8%	100.0%	
	천주교	1	1	0	0	2	
		50.0%	50.0%	.0%	.0%	100.0%	
	불교	6	2	0	0	8	
		75.0%	25.0%	.0%	.0%	100.0%	
	무종교	17	14	0	2	33	
		51.5%	42.4%	.0%	6.1%	100.0%	
전체	기타	1	0	0	0	1	
		100.0%	.0%	.0%	.0%	100.0%	
		38	50	4	4	96	
		39.6%	52.1%	4.2%	4.2%	100.0%	

* $p<.05$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이상적인 진행시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분~10분’이 52.1%(50명), ‘5분 이하’가 39.6%(38명), ‘11분~15분’과 ‘16분~20분’은 4.2%(4명)로 이상적인 진행시간은 6~10분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6분~10분’이 58.1%, ‘5분 이하’가 37.1%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5분 이하’가 44.1%, ‘6분~10분’이 41.2%로 나타나, 1학년이 2학년보다 ‘6분~10분’의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960$, $p<.05$).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6분~10분’이 54.2%, 여학생은 ‘6분~10분’이 50.0%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이상적인 진행시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6 분~10 분’이라고 응답한 기독교는 63.5%, 천주교는 50.0%로 가장 높았고, ‘5 분 이하’라고 응답한 불교는 75.0%, 무종교는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의 이상적인 진행시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상적인 실시 횟수에 대한 인식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상적인 실시 횟수에 대한 인식 결과는 다음 표 6 과 같다.

<표 16>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상적인 실시 횟수에 대한 인식

(N=96)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상적인 실시 횟수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전체	$\chi^2(p)$
학년	1학년	16	5	14	27	62	2.024 (.568)
		25.8%	8.1%	22.6%	43.5%	100.0%	
	2학년	6	5	6	17	34	
		17.6%	14.7%	17.6%	50.0%	100.0%	
성별	남	11	2	14	21	48	6.891 (.075)
		22.9%	4.2%	29.2%	43.8%	100.0%	
	여	11	8	6	23	48	
		22.9%	16.7%	12.5%	47.9%	100.0%	
종교	기독교	4	4	9	35	52	42.108*** (.000)
		7.7%	7.7%	17.3%	67.3%	100.0%	
	천주교	0	0	1	1	2	
		.0%	.0%	50.0%	50.0%	100.0%	
	불교	6	0	1	1	8	
		75.0%	.0%	12.5%	12.5%	100.0%	
	무종교	12	5	9	7	33	
		36.4%	15.2%	27.3%	21.2%	100.0%	
기타	기타	0	1	0	0	1	
		.0%	100.0%	.0%	.0%	100.0%	
	전체	22	10	20	44	96	
		22.9%	10.4%	20.8%	45.8%	100.0%	

*** $p < .001$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상적인 실시횟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 4 회’가 45.8%(44 명)로 가장 높았고, ‘주 1 회’가 22.9%(22 명), ‘주 3 회’가 20.8%(20 명), ‘주 2 회’가 10.4%(10 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이 일주일에 4 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건의 시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1 학년은 ‘주 4 회’가 43.5%, 2 학년은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주 4 회’가 43.8%, 여학생은 47.9%로 나타났다. 학년과 성별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상적인 실시횟수는 주 4 회의 응답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경건의 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주 4 회’가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는 ‘주 1 회’가 75.0%, 무교는 ‘주 1 회’가 12.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2.108, p<.001$).

(5)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임하는 태도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7 과 같다.

<표 17>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임하는 태도

(N=96)

경건의 시간에 임하는 태도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다	딴짓을 한다	그냥 눈만 감고 있다	기타	전체	$\chi^2(p)$
학년	1학년	27	9	20	6	62	2.583 (.461)
		43.5%	14.5%	32.3%	9.7%	100.0%	
	2학년	19	6	6	3	34	
		55.9%	17.6%	17.6%	8.8%	100.0%	
성별	남	22	4	18	4	48	7.311 (.063)
		45.8%	8.3%	37.5%	8.3%	100.0%	
	여	24	11	8	5	48	
		50.0%	22.9%	16.7%	10.4%	100.0%	
종교	기독교	35	6	5	6	52	30.220** (.003)
		67.3%	11.5%	9.6%	11.5%	100.0%	
	천주교	1	0	1	0	2	
		50.0%	.0%	50.0%	.0%	100.0%	
	불교	0	3	5	0	8	
		.0%	37.5%	62.5%	.0%	100.0%	
	무종교	10	6	14	3	33	
		30.3%	18.2%	42.4%	9.1%	100.0%	
기타		0	0	1	0	1	
		.0%	.0%	100.0%	.0%	100.0%	
	전체	46	15	26	9	96	
		47.9%	15.6%	27.1%	9.4%	100.0%	

** $p<.01$

표 1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임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다’가 47.9%(46 명)로 가장 높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27.1%(26 명), ‘딴짓을 한다’가 15.6%(15 명), ‘기타’가 9.4%(9 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경건의 시간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있다. 그냥 듣는다 등’이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경건의 시간에 대부분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며, 경건의 시간이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다’라고 응답한 1 학년은 43.5%, 2 학년은 5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45.8%, 여학생은 50.0%로 나타났다. 학년과 성별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은 진지한 마음으로 경건의 시간에 임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다’가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는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62.5%, 무종교는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0.220, p<.01$). 이는 기독교 학생들이 타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경건의 시간에 바른 태도로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1)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8 과 같다.

<표 18>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N=96)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유익 하다고 생각된다	그저 그렇다	별 유익이 안된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전체	$\chi^2(p)$
학년	1학년	7	17	23	11	4	62	8.053 (.090)
		11.3%	27.4%	37.1%	17.7%	6.5%	100.0%	
	2학년	2	18	8	6	0	34	
		5.9%	52.9%	23.5%	17.6%	.0%	100.0%	
성별	남	5	14	19	8	2	48	3.151 (.533)
		10.4%	29.2%	39.6%	16.7%	4.2%	100.0%	
	여	4	21	12	9	2	48	
		8.3%	43.8%	25.0%	18.8%	4.2%	100.0%	
종교	기독교	8	25	13	6	0	52	27.808* (.033)
		15.4%	48.1%	25.0%	11.5%	.0%	100.0%	
	천주교	0	1	1	0	0	2	
		.0%	50.0%	50.0%	.0%	.0%	100.0%	
	불교	1	1	1	4	1	8	
		12.5%	12.5%	12.5%	50.0%	12.5%	100.0%	
	무종교	0	8	15	7	3	33	
		.0%	24.2%	45.5%	21.2%	9.1%	100.0%	
기타	0	0	1	0	0	1		
	.0%	.0%	100.0%	.0%	.0%	100.0%		
전체		9	35	31	17	4	96	
		9.4%	36.5%	32.3%	17.7%	4.2%	100.0%	

* $p < .05$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된다’가 36.5%(35명)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가 32.3%(31명), ‘별 유익이 안된다’가 17.7%(17명),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된다’가 9.4%(9명), ‘아무런 유익이 없다’가 4.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그저 그렇다’가 37.1%, ‘유익하다고 생각된다’가 27.4%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유익하다고 생각된다’가 52.9%, ‘그저 그렇다’가 23.5%로 나타났으며, 2학년이 1학년보다

경건의 시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유익하다고 생각된다’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는 ‘별 유익이 안된다’가 50.0%, 무종교는 ‘그저 그렇다’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2.108, p<.001$). 이는 기독교 학생들이 타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경건의 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보인다.

(2) 경건의 시간이 도움되는 이유

경건의 시간이 도움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 와 같다.

<표 19> 경건의 시간이 도움되는 이유

(N=54)

내 용	빈도(N)	백분율(%)
기독교 신앙 형성에 도움	23	24.0
용기와 힘을 얻는 데 도움	5	5.2
긍정적인 태도에 도움	20	20.8
꿈과 목표를 갖는 데 도움	3	3.1
친구와 이웃을 배려하는 데 도움	3	3.1
계	54	56.3

표 19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이 도움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형성에 도움’이 가 24.0%(23 명), ‘긍정적인 태도에 도움’이 20.8% (20 명), ‘용기와 힘을 얻는 데 도움’이 5.2%(5 명), '꿈과 목표를 갖는 데 도움'이 3.1%(3 명), '친구와 이웃을 배려하는 데 도움'이 3.1%(3 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 과 같다.

<표 20>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

(N=32)

내 용	빈도(N)	백분율(%)
종교가 달라서	7	7.3
너무 형식적이어서	6	6.3
지겨워서	13	13.5
시간이 너무 짧아서	1	1.0
기타	5	5.2
계	32	33.3

표 20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겨워서’가 13.5%(13 명), ‘종교가 달라서’가 7.3%(7 명), ‘너무 형식적이어서’가 6.3%(6 명), ‘기타’가 5.2%(5 명), ‘시간이 너무 짧아서’가 1.0%(1 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등’이 있었다.

(4)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흥미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흥미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1 과 같다.

<표 21>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흥미

(N=96)

경건의 시간에 대한 흥미		매우 흥미 있다	흥미 있다	그저 그렇다	흥미 없다	전혀 흥미 없다	전체	$\chi^2(p)$
학년	1학년	4	20	28	8	2	62	6.892 (.142)
		6.5%	32.3%	45.2%	12.9%	3.2%	100.0%	
	2학년	3	19	10	1	1	34	
		8.8%	55.9%	29.4%	2.9%	2.9%	100.0%	
성별	남	5	15	20	7	1	48	6.579 (.160)
		10.4%	31.3%	41.7%	14.6%	2.1%	100.0%	
	여	2	24	18	2	2	48	
		4.2%	50.0%	37.5%	4.2%	4.2%	100.0%	
종교	기독교	7	31	12	2	0	52	50.701*** (.000)
		13.5%	59.6%	23.1%	3.8%	.0%	100.0%	
	천주교	0	1	1	0	0	2	
		.0%	50.0%	50.0%	.0%	.0%	100.0%	
	불교	0	1	2	3	2	8	
		.0%	12.5%	25.0%	37.5%	25.0%	100.0%	
	무종교	0	6	22	4	1	33	
		.0%	18.2%	66.7%	12.1%	3.0%	100.0%	
전체	기타	0	0	1	0	0	1	
		.0%	.0%	100.0%	.0%	.0%	100.0%	
		7	39	38	9	3	96	
		7.3%	40.6%	39.6%	9.4%	3.1%	100.0%	

*** $p < .001$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흥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흥미 있다’가 40.6%(39명)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가 39.6%(38명), ‘흥미 없다’가 9.4%(9명), ‘매우 흥미 있다’가 7.3%(7명), ‘전혀 흥미 없다’가 3.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그저 그렇다’가 45.2%, 2학년은 ‘흥미 있다’가 55.9%로 1학년보다 2학년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그저 그렇다’가 41.7%, 여학생은 ‘흥미 있다’가 50.0%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흥미 있다’가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는 ‘흥미 없다’가 37.5, 무종교는 ‘그저 그렇다’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50.701$, $p<.001$). 이는 기독교 학생들이 타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i) 경건의 시간이 흥미 있는 이유

경건의 시간이 흥미 있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2 와 같다.

<표 22> 경건의 시간이 흥미 있는 이유

(N=49)

내 용	빈도(N)	백분율(%)
성경 내용이 재미있다.	7	7.3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의 말씀이 재미있다.	3	3.1
인생을 사는 데 도움될 부분이 많다.	24	25.0
종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0	10.4
기타	5	5.2
계	49	51.0

표 22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이 흥미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인생을 사는 데 도움될 부분이 많다’가 25.0%(24 명), ‘종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가 10.4%(10 명), ‘성경 내용이 재미있다’가 7.3%(7 명), ‘기타’가 5.2%(5 명),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의 말씀이 재미있다’가 3.1%(3 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찬양하는 것이 좋다’ 등이 있었다.

ii)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3 과 같다.

<표 23>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

(N=32)

내 용	빈도(N)	백분율(%)
너무 기독교적이다.	11	11.5
내용이 딱딱하다	14	14.6
교수 방법이 흥미 없다.	3	3.1
성적과 상관이 없다.	2	2.1
기타	2	2.1
	32	33.3

표 2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에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내용이 딱딱하다’가 14.6%(14 명), ‘너무 기독교 적이다’가 11.5%(11 명), ‘교수 방법이 흥미 없다’가 3.1%(3 명), ‘성적과 상관이 없다’가 2.1%(2 명), ‘기타’가 2.1%(2 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종교에 흥미가 없다’가 있었다.

3) 경건의 시간을 통해 받은 영향에 대한 인식

(1)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4 와 같다.

<표 24>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

(N=96)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		기독교적 분위기로 아주 좋다.	약간의 기독교적 느낌이 든다.	그저 그렇다.	기독교적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	기독교적 분위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전체	$\chi^2(p)$
학년	1학년	16	29	16	0	1	62	11.720* (.020)
		25.8%	46.8%	25.8%	.0%	1.6%	100.0%	
	2학년	12	19	1	2	0	34	
		35.3%	55.9%	2.9%	5.9%	.0%	100.0%	
성별	남	12	21	13	1	1	48	7.086 (.131)
		25.0%	43.8%	27.1%	2.1%	2.1%	100.0%	
	여	16	27	4	1	0	48	
		33.3%	56.3%	8.3%	2.1%	.0%	100.0%	
종교	기독교	17	29	4	2	0	52	16.992 (.386)
		32.7%	55.8%	7.7%	3.8%	.0%	100.0%	
	천주교	1	1	0	0	0	2	
		50.0%	50.0%	.0%	.0%	.0%	100.0%	
	불교	3	4	1	0	0	8	
		37.5%	50.0%	12.5%	.0%	.0%	100.0%	
	무종교	7	13	12	0	1	33	
		21.2%	39.4%	36.4%	.0%	3.0%	100.0%	
전체		0	1	0	0	0	1	
		.0%	100.0%	.0%	.0%	.0%	100.0%	
	전체	28	48	17	2	1	96	
		29.2%	50.0%	17.7%	2.1%	1.0%	100.0%	

* $p < .05$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간의 기독교적 느낌이 든다’가 50.0%(48명)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적 분위기로 아주 좋다’가 29.2%(28명), ‘그저 그렇다’가 17.7%(17명), ‘기독교적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가 2.1%(2명), ‘기독교 분위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1.0%(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가 기독교적 분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약간의 기독교적 느낌이 든다’가 46.8%, ‘기독교적 분위기로 아주 좋다’가

25.8%로 나타났으며, 2 학년은 ‘약간의 기독교적 느낌이 든다’가 55.9%, ‘기독교적 분위기로 아주 좋다’가 35.3%로 1 학년보다 2 학년 학생들이 학교 분위기가 기독교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720$, $p<.05$).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약간의 기독교적 느낌이 든다’가 43.8%, 여학생은 ‘약간의 기독교적 느낌이 든다’가 56.3%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 분위기가 더 기독교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약간의 기독교적 느낌이 든다’라고 기독교는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는 50.0%, 무종교는 39.4%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학생들도 학교 분위기가 기독교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학교 입학 후 신앙생활의 변화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학교 입학 후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25 와 같다.

<표 25>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학교 입학 후 신앙생활의 변화

(N=96)

신앙생활 변화		아주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조금 나아진 편이다.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학교 입학 후 오히려 신앙생활이 해이해졌다.	오히려 나쁜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	 (p)
학년	1학년	6	33	18	2	3	62	3.732 (.443)
		9.7%	53.2%	29.0%	3.2%	4.8%	100.0%	
	2학년	7	17	7	0	2	33	
		21.2%	51.5%	21.2%	.0%	6.1%	100.0%	
성별	남	10	19	15	2	2	48	9.840* (.043)
		20.8%	39.6%	31.3%	4.2%	4.2%	100.0%	
	여	3	31	10	0	3	47	
		6.4%	66.0%	21.3%	.0%	6.4%	100.0%	
종교	기독교	12	34	5	1	0	52	83.825*** (.000)
		23.1%	65.4%	9.6%	1.9%	.0%	100.0%	
	천주교	0	1	0	0	0	1	
		.0%	100.0%	.0%	.0%	.0%	100.0%	
	불교	0	1	5	0	2	8	
		.0%	12.5%	62.5%	.0%	25.0%	100.0%	
	무종교	1	14	15	0	3	33	
		3.0%	42.4%	45.5%	.0%	9.1%	100.0%	
	기타	0	0	0	1	0	1	
		.0%	.0%	.0%	100.0%	.0%	100.0%	
전체		13	50	25	2	5	95	
		13.7%	52.6%	26.3%	2.1%	5.3%	100.0%	

* $p < .05$, *** $p < .001$

표 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학교 입학 후 신앙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나아진 편이다’가 52.6%(50명)로 가장 높았고,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26.3%(25명), ‘아주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13.7%(13명), ‘오히려 나쁜 변화를 가져왔다’가 5.3%(5명), ‘학교 입학 후 오히려 신앙생활이 해이해졌다’가 2.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건의 시간이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조금 나아진 편이다’가 53.2%, ‘아주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9.7%로 나타났고, 2학년은 ‘조금 나아진 편이다’가 51.5%, ‘아주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21.2%로 나타나 2학년이 1학년보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조금 나아진 편이다’가 39.6%, ‘아주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20.8%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조금 나아진 편이다’가 66.0%, ‘아주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6.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840, p<.05$)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조금 나아진 편이다’가 65.4%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불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62.5%, 무종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45.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3.825, p<.001$)

(3)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에 대한 인식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에 대한 인식 결과는 다음 표 26 과 같다.

<표 26>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에 대한 인식

(N=96)

기독교 이해하는 데 도움		크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체	 (p)
학년	1학년	4	25	27	4	2	62	.034 (1.000)
		6.5%	40.3%	43.5%	6.5%	3.2%	100.0%	
	2학년	2	14	15	2	1	34	
		5.9%	41.2%	44.1%	5.9%	2.9%	100.0%	
성별	남	4	16	22	5	1	48	5.018 (.285)
		8.3%	33.3%	45.8%	10.4%	2.1%	100.0%	
	여	2	23	20	1	2	48	
		4.2%	47.9%	41.7%	2.1%	4.2%	100.0%	
종교	기독교	4	28	17	3	0	52	29.568* (.020)
		7.7%	53.8%	32.7%	5.8%	.0%	100.0%	
	천주교	0	2	0	0	0	2	
		.0%	100.0%	.0%	.0%	.0%	100.0%	
	불교	0	2	3	1	2	8	
		.0%	25.0%	37.5%	12.5%	25.0%	100.0%	
	무종교	2	7	21	2	1	33	
		6.1%	21.2%	63.6%	6.1%	3.0%	100.0%	
	기타	0	0	1	0	0	1	
		.0%	.0%	100.0%	.0%	.0%	100.0%	
전체		6	39	42	6	3	96	
		6.3%	40.6%	43.8%	6.3%	3.1%	100.0%	

* $p < .05$.

표 2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가 43.8%(42명)로 가장 높았고, ‘도움이 된다’가 40.6%(39명), ‘크게 도움이 된다’가 6.3%(6명), ‘도움이 안 된다’가 6.3%(6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가 3.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이 46.9%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도움이 된다’가 40.3%, ‘크게 도움이 된다’가 6.5%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도움이 된다’가 41.2%, ‘크게 도움이 된다’가 5.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도움이 된다’가 33.3%, ‘크게 도움이 된다’가 8.3%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도움이 된다’가 47.9%, ‘크게 도움이 된다’가 4.2%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도움이 된다’가 53.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불교는 ‘그저 그렇다’가 37.5%, 무종교는 ‘그저 그렇다’가 63.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9.568, p<.05$). 이는 기독교가 타 종교 및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을 통한 전도의 효과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을 통한 전도의 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7 과 같다.

<표 27>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을 통한 전도의 효과

(N=96)

기독교 이해하는 데 도움		매우 효과 있다.	효과가 있다.	그저 그렇다.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전체	$\chi^2(p)$
학년	1학년	1	17	34	8	2	62	7.597 (.108)
		1.6%	27.4%	54.8%	12.9%	3.2%	100.0%	
	2학년	1	18	11	4	0	34	
		2.9%	52.9%	32.4%	11.8%	.0%	100.0%	
성별	남	2	15	22	8	1	48	4.070 (.397)
		4.2%	31.3%	45.8%	16.7%	2.1%	100.0%	
	여	0	20	23	4	1	48	
		.0%	41.7%	47.9%	8.3%	2.1%	100.0%	
종교	기독교	2	23	22	5	0	52	14.194 (.584)
		3.8%	44.2%	42.3%	9.6%	.0%	100.0%	
	천주교	0	1	1	0	0	2	
		.0%	50.0%	50.0%	.0%	.0%	100.0%	
	불교	0	3	2	2	1	8	
		.0%	37.5%	25.0%	25.0%	12.5%	100.0%	
	무종교	0	8	19	5	1	33	
		.0%	24.2%	57.6%	15.2%	3.0%	100.0%	
	기타	0	0	1	0	0	1	
		.0%	.0%	100.0%	.0%	.0%	100.0%	
전체		2	35	45	12	2	96	
		2.1%	36.5%	46.9%	12.5%	2.1%	100.0%	

표 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을 통한 전도 효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가 46.9%(45명)로 가장 높았고, ‘효과가 있다’가 36.5%(35명), ‘효과가 없다’가 12.5%(12명), ‘매우 효과 있다’가 2.1%(2명), ‘전혀 효과가 없다’가 2.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그저 그렇다’가 이 54.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2학년은 ‘효과가 있다’가 52.9%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경건의 시간을 통해 전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효과가 있다’가 31.3%, 여학생은 ‘효과가 있다’가 41.7%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전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효과가 있다’가 44.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불교는 ‘효과가 있다’가 37.5%, 무종교는 ‘그저 그렇다’가 57.6%, ‘효과가 있다’가 24.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 및 종교가 없는 학생들도 경건의 시간을 통해 전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인격형성에 도움 정도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인격형성에 도움 정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8 과 같다.

<표 28>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인격형성에 도움 정도

(N=96)

기독교 이해하는 데 도움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체	 (p)
학년	1학년	5	24	22	10	1	62	5.286 (.259)
		8.1%	38.7%	35.5%	16.1%	1.6%	100.0%	
	2학년	4	20	7	3	0	34	
		11.8%	58.8%	20.6%	8.8%	.0%	100.0%	
성별	남	4	17	16	11	0	48	9.925* (.042)
		8.3%	35.4%	33.3%	22.9%	.0%	100.0%	
	여	5	27	13	2	1	48	
		10.4%	56.3%	27.1%	4.2%	2.1%	100.0%	
종교	기독교	4	28	17	3	0	52	29.568* (.020)
		7.7%	53.8%	32.7%	5.8%	.0%	100.0%	
	천주교	0	2	0	0	0	2	
		.0%	100.0%	.0%	.0%	.0%	100.0%	
	불교	0	2	3	1	2	8	
		.0%	25.0%	37.5%	12.5%	25.0%	100.0%	
	무종교	2	7	21	2	1	33	
		6.1%	21.2%	63.6%	6.1%	3.0%	100.0%	
	기타	0	0	1	0	0	1	
		.0%	.0%	100.0%	.0%	.0%	100.0%	
전체		6	39	42	6	3	96	
		6.3%	40.6%	43.8%	6.3%	3.1%	100.0%	

* $p < .05$

표 2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성별과 종교에 따른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가 43.8%(42명)로 가장 높았고, ‘약간 도움이 된다’가 40.6%(39명), ‘매우 도움이 된다’가 6.3%(6명), ‘별로 도움이 안 된다’가 6.3%(6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가 3.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은 ‘약간 도움이 된다’가 38.7%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2학년은 ‘약간 도움이 된다’가 58.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2학년이 1학년에 보다 정견의 시간을 통해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약간 도움이 된다’가 35.4%, 여학생은 ‘약간 도움이 된다’가 56.3%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925$, $p<.05$).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약간 도움이 된다’가 53.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천주교는 ‘약간 도움이 된다’가 100%, 불교는 ‘그저 그렇다’가 37.5%, 무종교는 ‘그저 그렇다’가 63.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9.568$, $p<.05$). 이는 타 종교 및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기독교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 6 장

결론

이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한국 기독교 학교의 경건의 시간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함으로써 본 연구를 끝내고자 한다.

1. 연구요약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논의했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초대 기독교의 모습 속 기독교 학교의 역할과 기능들과 그 결과들을 보고 120 년 후인 현재의 기독교 학교의 모습, 즉, 고등학생들의 치열한 입시 경쟁과 학업 우선적인 교과편성, 국가 정책에 따른 종교 차별 금지 등이 기독교 학교를 비 기독교학교화 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복음화를 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재직했던 동방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대전 지역의 기독교 학교의 현황을 수집하고 동방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분석하고 문헌들을 참고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급격하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교 복음화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본 연구에 임하였다. 연구에 임하기 앞서 간단한 용어들을 정리하였는데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 학원 선교, 청소년을 정의하고 부수적인 설명을 했다. 그리고 성경적, 신학적으로 기독교 학교 내에서의 QT 의 정당성을 찾고, 단위 별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해 놓았다.

제 2 장 기독교 학교의 경건의 시간 개념 이해는 경건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논하기 시작했다. 경건의 시간을 1 장에서 정의한 것을 한 번 더 언급해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칼빈이 주창하는 경건을 논했다. 그다음은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경건으로 칼빈주의 5 대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과 함께 연구해 나아갔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경건의 시간을 해석했는데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와 비교해 연구했다. 또한, 이것을 적용 시켜야 할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을 분석하고 대전지역의 기독교 학교별 기독교적 교육시행 현황 및 채플 현황을 조사한 뒤, 기독교 학교에서의 기독교적 교육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제 3 장 기독교 학교 선교 대상으로서 현대 청소년의 문화적 이해에서는 선교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현대 청소년들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했다. 청소년을 정의하고 청소년 시기에 찾아오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특징들과 변화들을 기술하였다. 그다음은 현대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청소년들에게 보이는 포스트모던 주의, 감정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등의 특성을 찾아내고 논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성과 성격을 가진 현대 청소년이 기독교 학교 선교 대상으로써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논하였다.

제 4 장 기독교학교 경건의 시간 실시 현황은 본 연구자가 실제로 근무했던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동방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의 전형적인 모습과 기독교 학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했다. 학교의 건학 이념과 교육 이념을 분석하고, 전 학년의 교육과정 편성표와 대조해서 기독교 학교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기독교 학교인 동방고등학교의 건학 이념 또한 기독교 정신이 묻어나는 기독교적 이념으로 학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참고해서 학교에서의 노력과 공교육을 해야만 하는 학교의 입장에서의 기독교적 교육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기독교적 교육시간에는 어떤 것을 하는지, 그리고 채플은 무엇이고 채플의 진행 과정 등을 기술해 놓았다.

제 5 장 경건의 시간에 관한 설문자료 분석은 본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만든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한 내용을 기술했다. 일반적 배경, 경건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한 인식 총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구성하고, 해당 구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문항을 만든 뒤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후 설문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2. 연구결론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은 기독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기도의 시간을 매일 정한 시간에 실시함으로 기독교 학생뿐만 아니라 불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인성함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입시준비로 인해 바쁜 학창 생활 속에서도 성경의 가르침,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끌게 하고 또 익숙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학교 본연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분명한 교육목표와 기독교적 가치관의 부재 속에서 이름만이 기독교 학교인 그야말로 일반 학교와 다르지 않은 구태의연함 속에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²³⁾

기독교 학교가 한국교육의 현실 속에서 설립목적과 그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며 우리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효과적이면서 더 큰 영향력을 주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하는 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 학교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방법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자는 대전에 위치한 기독교 학교인 동방고등학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이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

첫째, 기독교 고등학교의 경건의 시간의 형식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종교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보다 경건의 시간 형식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보다 경건의 시간 형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건의 시간의 형식에 만족하며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건의 형식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형식을 자유롭게 하자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영상 중심으로 형식을 개선하자는 응답이

123) 고용수, “이것이 기독교학교이다”, 『기독교학교교육』, 제 1 집, 54.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과 수업 동안 지식 전달을 받으며 수직 관계의 형식을 벗어나 경건의 시간만큼은 형식을 자유롭게 하여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건의 시간을 영상 매체를 통해 더욱 쉽고 재미있는 경건의 시간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기독교 고등학교의 경건의 시간의 이상적인 진행시간에 대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6~10 분이 이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년의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1 학년은 과반수가 6~10 분으로 응답했지만, 2 학년은 5 분 이하의 응답이 6~10 분 응답보다 높았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경건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는 과반수가 6~10 분이라고 응답했지만, 불교와 무종교 학생들은 과반수가 5 분 이하가 이상적인 진행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경건의 시간을 길게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기독교 고등학교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상적인 실시 횟수에 대해 학생들은 주 4 회가 이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종교의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기독교는 과반수가 주 4 회가 이상적인 횟수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불교와 무종교는 주 1 회가 이상적인 횟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신앙교육이 익숙한 기독교 학생들은 매일 교과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일과 중 경건의 시간이 매일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종교가 없거나 타 종교의 학생들은 주 1 회 이상 경건의 시간을 실시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기독교 고등학교 경건의 시간에 임하는 태도에 절반 정도는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절반 정도는 딴짓하거나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독교 학생들은 과반수가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지만, 불교나 무종교 학생들은 딴짓하거나 눈만 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종교 학생 중 1/3 의 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종교가 없거나 다르더라도 경건의 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인식

첫째, 기독교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경건의 시간에 대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종교 변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 학생들은 과반수가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불교 학생들은 과반수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무종교 학생들도 과반수가 유익이 되지 않거나 그저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경건의 시간이 종교가 없거나 타 종교의 학생들도 편안하게 다가가며, 경건의 시간을 통해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건의 시간이 유익하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 기독교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긍정적인 태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경건이 시간이 지겨워서, 종교가 달라서, 너무 형식적이어서 경건의 시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경건의 시간의 형식을 자유롭게 하자는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결과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틀에 박힌 딱딱한 형식 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기독교 고등학교 경건의 시간에 대한 흥미는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는 과반수가 경건의 시간이 흥미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불교는 과반수가 흥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종교는 경건의 시간에 흥미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인식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이 1학년보다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높았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높았다.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있는 이유는 인생을 사는 데 도움될 부분이 많고, 종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 입시 준비를 하며 보내는 학생들에게 경건의 시간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없는 이유는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기독교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과 수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기독교 종교 교육이 딱딱하게 다가가기보다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학년, 성별, 종교에 따른 경건의 시간을 통해 받은 영향에 대한 인식

첫째, 기독교 고등학교의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은 과반수가 학교가 기독교적 분위기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 학년보다 2 학년 학생들이 학교가 기독교적 분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가 기독교적 분위기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들이 기독교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외적·내적 환경 요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며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바른 신앙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 고등학교 입학 후 신앙생활 변화에 대해 과반수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별과 종교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았고,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 학생들은 과반수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았으나, 불교와 무종교 학생들은 과반수가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기독교 고등학교 경건의 시간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절반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 학생들은 과반수가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불교와 무종교 학생들은 과반수가 도움이 안 되었거나 그저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종교가 없거나 타 종교의 학생들도 기독교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기독교 고등학교 경건의 시간을 통한 전도 효과에 대한 절반 정도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3 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2 학년이 1 학년보다 전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전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독교 고등학교 경건의 시간이 인격형성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은 절반 정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인격성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 학년보다 2 학년 학생들이 인격형성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건의 시간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에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통계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이 시간을 통해 신앙적 인격 형성 또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학생의 경우에는 경건의 시간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진행되는 경건의 시간이 재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목적인 학원 선교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건의 시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도 있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건의 시간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시간 운영시간 조정, 교사와 선교부장, 차장을 통한 자율적인 경건의 시간 운영, 설교 방법의 다양화 즉, 영상, 음악, PPT 을 사용한 설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건의 시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반의 담임교사, 특히, 각반의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선교부장과 차장의 교육이 절실함으로 선교 동아리 시간이나 신앙수련회, 교목실을 통한 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지도가 계속 된다면 학원 선교와 학생들의 기독교 인성 함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학교들이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교육과 더불어 경건의 시간을 접목하여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기독교 가치관과 신앙 훈련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3.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제언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긴다.

첫째, 연구자가 실시한 기독교 학교 경건의 시간에 대한 조사는 대전에 위치한 기독교 학교들과 동방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96 명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이므로 농촌이나 타 도시에 위치한 기독교

학교의 경건의 시간 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경험적 연구와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본 논문은 기독교 학교인 동방고등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기독교 가치관 및 기독교 인성 함양 그리고 학원 선교를 위해 종교학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채플, 선교단 활동, 경건의 시간 등의 시간을 철저히 계획하고 시행한 것에 대한 연구이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학교의 여건상 동방고등학교와 같이 종교수업 및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기독교 학교의 경건의 시간 및 종교활동, 학원 선교 등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설립목적을 이루는 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문제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기독교 학교의 종교정책을 책임지고 이를 실행하는 교목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과 가장 근접해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 교사 임용, 기독교 학교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신앙교육, 학원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확립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기독교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경건의 시간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훈련 받아 차세대 기독교 리더로 세워져가는 귀한 열매들이 있기를 바란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조사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 2) 여

2. 학생은 몇 학년에 재학 중이십니까?

- 1) 1 학년 2) 2 학년 3) 3 학년

3. 학생은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유교 5) 무종교 6) 기타()

4. 학교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독교적 분위기로 아주 좋다. 2) 약간의 기독교적인 느낌이 든다.
3) 그저 그렇다. 4) 기독교적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
5) 기독교적 분위기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5. 기독교 학교에서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면 다음 어느 부분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경건의 시간 2) 채플시간 3) 종교수업
4) 학교에서 갖는 신앙수련회 5) 종교동아리 6) 상담
7) 기타()

8.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의 형식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 1) 지금까지 실시해온 방법이 가장 좋다.
- 2) 비교적 좋은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 5)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경건의 시간의 형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한 학생들만 답해 주세요.

8-1. 만일 경건의 시간의 형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떤 형식을 원하십니까?

- 1) 성경말씀 중심으로
- 2) 영상 중심으로
- 3) 찬양시간을 길게
- 4) 형식을 자유롭게
- 5) 기타 ()

9.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의 진행시간은 어느 정도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1) 5 분 이하
- 2) 5~10 분
- 3) 11~15 분
- 4) 16~20 분

10.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이 기독교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크게 도움이 된다.
- 2) 도움이 된다.
- 3) 그저 그렇다.
- 4) 도움이 안된다.
- 5) 전혀 도움이 안된다.

11.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이 전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1) 매우 효과 있다.
- 2) 효과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효과가 없다.
- 5) 전혀 효과가 없다.

12.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에 대해 흥미가 있습니까?

- | | |
|--------------|-----------|
| 1) 매우 흥미 있다. | 2) 흥미 있다. |
| 3) 그저 그렇다. | 4) 흥미 없다. |
| 5) 전혀 흥미없다. | |

* 흥미가 있다고 답한 학생은 12-1 로, 반대의 경우는 12-2 문항에서 답해 주세요.

12-1. 흥미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 | | |
|------------------------|---------------------------|
| 1) 성경내용이 재미있다. | 2)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의 말씀이 재미있다. |
| 3) 인생을 사는데 도움될 부분이 많다. | 4) 종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 5) 기타() | |

12-2. 흥미가 없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 | |
|------------------|----------------|
| 1) 너무 기독교적이다. | 2) 내용이 딱딱해서 |
| 3) 교수 방법이 흥미 없어서 | 4) 성적과 상관이 없어서 |
| 5) 기타() | |

13.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은 주 당 몇 번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되십니까?

- | | | | |
|----------|----------|----------|-------|
| 1) 주 1 회 | 2) 주 2 회 | 3) 주 3 회 | 4) 매일 |
|----------|----------|----------|-------|

14.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약간 도움이 된다. | 3) 그저 그렇다. |
| 4)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5) 매우 도움이 안 된다. | 6) 기타() |

15. 학교에서의 경건의 시간에 임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 | | |
|------------------|-------------|
| 1) 진지한 마음으로 임한다. | 2) 딴 짓을 한다. |
| 3) 그냥 눈만 감고 있다. | 4) 기타() |

16. 고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 누구와 함께 의논하십니까?

- | | | |
|--------|-------|----------|
| 1) 부모님 | 2) 형제 | 3) 교목 |
| 4) 선생님 | 5) 친구 | 6) 기타() |

17. 학교생활에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어느 것을 통해서입니까?

- | | | |
|------------|-----------|-----------|
| 1) 경건의 시간 | 2) 채플 시간 | 3) 종교시간 |
| 4) 기독교인 친구 | 5) 학교 분위기 | 6) 기타 () |

18. 교목이나 기독교인 선생님으로부터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습니까?

- | | | |
|------------|--------------|----------|
| 1) 크게 받았다. | 2) 받았다. | 3) 모르겠다. |
| 4) 못 받았다. | 5) 전혀 못 받았다. | |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 강정호, 장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쟁점」. 서울: 도서출판 터, 1991.
- 구효송. 「신들의 축제, 고대 올림픽」. 서울: 상아기획, 2006.
- 권이중. 「청소년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6.
- 김남선 외. 「청소년 교육론」. 서울: 형설 출판사, 2003.
- 김성이, 조학래, 노충래. 「청소년복지학」. 경기: 집문당, 2004.
- 김원태.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서울: 두란노, 2002.
- 김진화 외. 「청소년 문제 행동론」. 서울: 학지사, 2002.
-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서울: 두란노, 1990.
- 박동현. 「부르심과 경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 박상진. 「기독교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백영철 외. 「종교와 생활Ⅱ」.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송인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서울: IVP, 1984.
- 윤종하. 「묵상의 시간」. 서울: 성서유니온, 2005.
-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이상규.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큐티」. 서울: 두란노, 2000.
- 이상덕. 「경건과 실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학기독교서회, 1997.
- 전광식. 「기독교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그 원리와 실제」. 서울: 독수리교육공동체, 2006.
- 정웅섭.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정하성.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자유출판사, 1989.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4.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맹 45 년사」. 서울: 쿤란출판사, 2009.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복지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5.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복지론」. 경기: 양서원, 2000.

Baumgartner, Walter and Hohann Jakob Stamm. rev.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I*, tr. and ed. M.E.J. Richardson, Leiden: E. J. Brill, 1994.

Botterweck, G. Johnnes and Helmer Ringr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 trans. David E. Green.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86.

Bowe, Barbara E. *Biblical Foundation of Spirituality*. New York: A Sheed & Ward Book, 2003.

Brown, Francis.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72.

Calvin, John. 「칼빈의 경건(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_____. 「기독교강요」.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8.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Acts of the Apostles 14-28*. trans. John W. Fraser. Grand Rapids: W. B. Eerdmans, 1973.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John W. Fraser. Grand Rapids: W. B. Eerdmans, 1973.

Clines, David J.A.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III.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Fleming, Jean. 「Quiet Time으로의 초대: 경건의 시간(Quiet Time)을 위한 지침서(*Feeding Your Soul: A Quiet Time Handbook*)」. 네비게이트 선교회 역. 서울: 네비게이트, 2002.

Foster, Richard J. 「영적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Harvey, David. 「포스트모더니즘의 조건」. 구동희, 박영민 공역. 서울: 한울, 1994.

Law, William. 「경건한 삶을 위하여」. 서문 강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Liotard, Jean-Francois.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The Postmodern, Condition)」. 이문균 역.

Myers, Kelly Warren. 「경건의 시간을 갖는 법(How to Have a Quiet Time)」. 서울: 네비게이트, 2011.

- Packer, J. I. 「청교도사상 (Among God's Giants)」.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Pierson, A. T.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Richards, Lawrence. 「경건한 삶을 위하여」. 지상우 역. 서울: 여수론, 1989.
- Watson, Thomas. 「경건」. 김동완 역.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 사람, 2015.
- Wesley, John. “이성적이며 종교적인 인사들에 대한 간곡한 호소문”. 「존 웨슬리총서 9」. 송홍국 역. 서울: 유니온 출판사, 1983.

2. 정기간행물

- 강영택. “초기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비교고찰”. 「신앙과 학문」. 17 호. 2012. 7-37.
- _____. “기독교학교의 교육목표와 대학입시”. 「신앙과 학문」. 12 호. 2007. 9-47.
- 고용수. “이것이 기독교학교이다”. 「기독교학교교육」. 제 1 집. 서울: 기독교학교협의회, 1988. 49-70.
- 김영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신학”. 「목회와 신학」. 1992 년 8 월. 81-82.
- 김정준. “히브리 경건 연구”, 「신학연구」. 제 17 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6. 39-68.
- 김희자. “기독교 학교의 본질과 목적”. 「기독교교육연구」. 9 권 1 집. 서울: 총신대학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1998. 7-31.
- 동방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 2016.
- 이규민. “21 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교육”. 「神學理解」 제 24 절. 2002 년 12 월. 140-166.
- 이만열. “도산 안창호와 기독교 신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호. 2002. 46-87.
- 이수영. “칼뱅에 있어서의 경건의 개념”. 「교회와 신학」 vol. 27. 장로회신대학교, 1995. 346-371.
- 이학재. “기도의 매뉴얼로서 시편 1 권(1~14 편)에 나타난 개인적 부흥의 신학적 접근”. 「성경과 신학」. vol 43.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7. 7-43.
- 임창복. “기독교 영성 교육의 방향”,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47-78.

3. 미간행물

김진홍. “한국교회 경건훈련으로서의 QT 연구와 적용 방안”.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7.

조역현. “예수님의 교육방법에 근거한 학교 신앙교육 연구(문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신학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대학원, 2014.

홍원표. “포스트모던시대의 청소년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4.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November 28, 2016

Sung Hun Yeo

IRB Approval 2682.112816: A Case Study on the Quiet Time at a Christian School with a Focus on the Dongbang High School

Dear Sung Hun Yeo,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r study has been approved by the Liberty University IRB. This approval is extended to you for one year from the date provided above with your protocol number. If data collection proceeds past one year, or if you make changes in the methodology as it pertains to human subjects, you must submit an appropriate update form to the IRB. The forms for these cases were attached to your approval email.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with the IRB, and we wish you well with your research project.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The Graduate School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